



“글 쓰고 그림 그리며 정체성 확인했어요” 효사랑선교회가 주최한 제3회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13일 홀튼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관련기사 3면>

## 북한 인권 위해 미주 한인 2세 결집

지난 2004년부터 북한 인권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KCC-그날까지기도연합'이 오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여름 인턴십과 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워싱턴 DC에서 6년 연속 열리는 이 대회는 올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는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한인 2세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이 한반도를 품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김요셉(Joseph Kim)을 포함한 탈북자, 북한인권전문가 그룹이 2세를 위한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요셉은 TED 연설을 통해 탈북고아에서 미국대학생이 되기까지 자신의 스토리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바 있다.

둘째는 탈북자 인권 등에 전혀 개

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하여 '북한제재이행법안(H.R.757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의 미 의회 통과를 호소하는 한편, KCC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북한어린이복지법(H.R.1464 North Korea Child Welfare Act)'에 미 행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다.

대표간사 손인식 목사는 "워싱턴 DC에서 시작한 우리의 울부짓음이 북한 동포를 살리는 참소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인턴으로 처음 참가하는 학생들은 봉사활동 100시간을 인정 받아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동상이 수여되며, 전년에 이어 참석하여 전체 250시간이 넘는 학생들에게는 금상이 수여된다. 문의) 714-928-8582

## “동성애 소송으로부터 교회 지키려면”

법적으로 신앙고백서·고용 기준·시설 사용 규정 마련해야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률 지침서가 발간됐다.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와 자유수호연맹(ADF)이 발간한 이 지침서는 동성결혼으로 인해 종교 자유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을 위한 책이다. 최근 동성결혼에 서비스를 거부한 상점들이 대거 소송을 당하면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교회를 대상으로도 얼마든지 소송을 걸어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침서의 이름은 Protecting Your Ministry From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Lawsuits이며 한국어로 번역하면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 소송으로부터 사역을 보호하는 법”이다.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웹사이트 [www.eric.com/store/product\\_detail/18876](http://www.eric.com/store/product_detail/18876)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러셀 무어 위원장은 “교회는 교회의 신념을 주 정부에 위탁할 수 없다”면서 “이 지침서는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문화 속에서 교회가 선교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모든 교회, 기독교 학

교, 사역체들은 생물학적인 성(Sex), 사회적 성(Gender)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신앙고백서(Statements of Faith), 종교적 고용 기준(Religious Employment Criteria), 그리고 시설 사용 규정(Facility Use Policy)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동성애자가 교회에 취직하고자 할 때나 동성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리 고자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교회 멤버십을 보유한 성도를 규정하는 기준, 그 성도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행동 지침과 결혼 정책도 만들어 놓아야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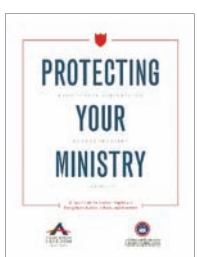
기독교 학교는 성과 관련해 학생의 입학과 퇴학, 징계에 관해 명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 해도 기독교 교육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 학교와 다를 바 없다고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침서는 “결혼 및 성과 관련

한 이슈는 종교 단체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교회는 자신들의 신념과 위배되는 동성결혼식에 교회 시설이 사용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며, 기독교 학교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고용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 지도자들은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할 경우, 징역 등 어떤 형벌도 감수하면서 불복종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www.defendmarriage.org](http://www.defendmarriage.org)에서 시작해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리차드 랜드 목사, 제임스 돕슨 박사 등 현재까지 약 5만 명이 서명했다.

온라인 서명운동 성명서에서 이들은 “인류의 역사는 정부가 동성결혼자들에게 동등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결혼을 재정의하는 것과 같이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헌법을 수정할 경우, 경찰력을 이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사용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종교 자유를 포함해 모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감옥에 가는 것을 포함해 어떤 벌금이나 처벌도 감수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침서 표지

## “어떤 곡을 어떤 권한으로?”

저작권 반드시 확인해야

최근 한인교회 내에 CCM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CCM 저작권 관리 단체인 CCLI의 한국지부 함승모 대표가 13일 LA를 찾아 저작권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그는 이날 참석한 약 60여 명에게 CCM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한편, 기독교 문화의 발전을 위해 한인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저작권 라이선스를 구매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3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저작권 대행 단체가 어떤 곡을 관리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선택하란 것이다. 그들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곡에 대해서만 대행할 수 있기에 어떤 단체가 어떤 곡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중복 지불을 피할 수 있다. CCLI를 포함한 대부분 단체는 월 회비, 혹은 연 회비를 지불하면 그 단체가 보유한 모든 곡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반대로 그들이 보유하지 않은 곡을 사용할 때에는 다른 단체에 별도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둘째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다. 저작권 안에는 가사나 악보를 복사할 수 있는 복제권, 부른 곡을 인터넷 등으로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부른 음악을 CD 등에 녹음할 수 있는 저작권 등 실로 그 분야가 다양하다. 다행히 예배 중 부르는 것에는 종교적 면제 조항이 적용돼 공연권은 적어도 예배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곡의 복제권에 대해서만 라이선스를 취득했는데 다른 권한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는 저작료 분배 시스템이다. 저작권 자체가 저작자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작료가 어떻게 얼마나 투명하게 지불되는지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것이다.

함 대표는 CCLI가 한국 CCM도 약 3000곡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주 한인교회들이 미국 CCLI(us.ccli.com)를 통해 가입할 경우 이 CCM 곡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저작료가 한국 CCM 가수들에게 배분된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신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http://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5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과정 : 신학사(B.A.), 교역학석사(M.Div.)

- 2015년 여름계절학기  
5월 18일 (월) ~ 8월 14일 (금)
- 2015년 가을학기 개강  
8월 24일 (월)
- ESL 가을학기 개강  
9월 8일 (화)

입학관련 문의

[www.ptsa.edu](http://www.ptsa.edu)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a.edu](mailto:office@ptsa.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박정환 목사)  
: 010-6612-1165 / [park27-42@daum.net](mailto: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주철현 목사)  
: 010-9086-2458 / [diakonia@gmail.com](mailto:diakonia@gmail.com)

ESL 문의 및 상담

[www.facebook.com/SLCS.EPT](http://www.facebook.com/SLCS.EPT)

- 강우중 교수 ([wjkang@ptsa.edu](mailto:wjkang@ptsa.edu))

1-20 발행

정회원 ats 준회원

학생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

**비전**  
Vision

복음적인 가치  
창조를  
할 수 있는  
리더를 키우는  
**학교**

**미션**  
Mission

80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와  
해외한인장로회  
(KPCA) 산하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21개 지역 노회와  
지교회, 그리고  
미전도 지역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학교**

**필드**  
Field



※ 전 세계 21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 교단 목사고시는 물론 예장통합(PCK) 목사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안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명이 가능합니다. ※ 유학생 가족(F2)도 학위취득 가능합니다.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http://www.ptsa.edu) / [office@ptsa.edu](mailto:office@ptsa.edu)





한석호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했다.

## 나성삼일교회 담임에 한석호 목사 취임

### “성경대로 목회하고 설교하겠다” 다짐

나성삼일교회의 담임으로 한석호 목사가 취임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는 한국 교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선구자인 故 한상동 목사를 기념하며 LA에 설립된 교회로, 재미고신총회 소속이다.

16일 주일 오후 4시 드린 취임 감사예배에서는 재미고신총회의 교단신학교인 에반젤리아대학교의 신현국 총장이 “바울의 가슴에 불

타는 복음의 역사(행20:23-24)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강위상 목사(중경총회장)가 축도하는 등 고신의 원로급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또 영 김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의원, 유수연 ABC교육구 위원장 등 선출직 정치인들도 참석해 축하했다.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 이경호 목사(한아름합창단), 한아름합창단 몸찬양팀도 출연해 축하를 불렀다.

한석호 목사는 취임사에서 “성경대로 목회하고 설교하겠다. 선배들에게 배운 대로 겸손하지만 열정적으로 목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목사는 총신대학교 신대원(M.Div.)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Th.M.)에서 공부했다.

교회 주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90006  
전화) 213-389-6000

김준형 기자

## 크리스천헤럴드 사옥 이전 감사예배 드려

문서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1977년 10월 21일 창간된 후 38년의 역사를 지닌 크리스천헤럴드 사(발행인 양준호 회장)가 더욱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TV 방송국(18.88)을 개국하고자 3700 Wilshire Bl.(105호)로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15일(월) 오후 6시 30분 본사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정대철 목사(방송부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김중대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가 대표로 기도하고, 민종기 목사(중현선교교회)가 설교했다. 민목사는 김숙영 교수(방송국장)의 특별 찬양에 이어 등단, 마태복음 3장 1절-3절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목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중의 왕이신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 요한은 그 왕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나팔수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오늘 TV 방송 개국을 위해 사옥을 이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크리스천헤럴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나팔수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축사한 박희민 목사(미주성서화



양준호 발행인이 사옥 이전 감사예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표회장은 “현대사회는 정보를 중요시하고 있다. 38년 된 크리스천헤럴드는 미주 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를 비롯, 연감, 미주이민사 등 귀중한 사료들을 출간하였다. 이제는 신문과 방송과 TV의 3두 마차를 이끌고 힘차게 달려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는 “다른 언론들은 한국 문화와 세상 문화를 소개하는 반면에 크리스천헤럴드는 기독교 문화를 알리고 전하고 소개하는 크리스천 문화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강력한 언론사가 될 것을 기원한다”고 했다.

발행인 양준호 회장은 “부족하지

만 제가 시작한 이 TV 사역은 이민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힘이 들지만 주님의 능력과 보호와 사랑에 힘입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요한 목사(본사 미디어 사장) 사회로 내빈과 직원 소개 후,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의 축도로 크리스천헤럴드 사옥 이전 감사예배 순서를 모두 마쳤다. 한편, 이 방송은 오는 10월 1일 개국을 목표로 사전 시험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TV 방송을 이용해 설교 방송에 참여할 목회자 및 선교사들의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6월 사랑의 점심 식사는 6.25 전쟁 참전용사 10명을 초청해 더욱 의미가 컸다.

## 6.25 참전용사 초청해 사랑의 점심

### 방주교회 매달 둘째 목요일마다 지역사회 섬김

방주교회(김영규 목사)가 5년째 매달 둘째 목요일에 개최하는 사랑의 점심 식사 행사가 6월 11일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참석자 220명 중 특별히 6.25 전쟁 65주년을 맞이해 한국인 참전용사 10명을 초청했다. 미셸 박 스틸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와 허브 웨스 LA시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선물을 증정했다.

이번 행사는 CDS카드결제서비스(법인장 김용대)와 LA월서라이온스클럽(회장 정진하)이 후원했다.

김준형 기자



CEF 한인지회가 과거 개최한 어린이 새생활 성경캠프

## “하나님의 형상 따라” 성경캠프

### CEF 한인지회 주최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어린이전도협회(CEF) 한인지회(대표 여병현 목사)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샌렌드 렌초 이바라 크리스천 캠프장에서 “Imago Dei -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새생활 성경캠프(New Life Bible Camp)를 개최한다.

어린이전도협회는 매년 방학 때마다 성경캠프를 열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에 주력한다.

어린이전도협회가 캠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어린이의 눈높이다. 확실한 눈높이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어린이들이 중독 현상을 보이는 스마트 기기나 SNS의 악영향과 사탄의 전략에 대해 특별히 교육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예배와 게임, 창작 활동 및 특별 활동, 팀별 성경공부, 수영, 찬양 발표회 등이다.

여병현 목사는 “이 캠프는 영성, 사회성, 리더십, 비전을 갖도록 인도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어릴 때의 신앙 교육은 일생을 지배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착순 150명에 한해 접수 중이며 참가비는 7월 6일까지 등록시 190달러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cefkoc.com나 213-382-1544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 사랑의 띠 선교회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Bond of Love Mission - Elim Disability Ministry LA 사랑의 띠 선교회\_ 한국 엘림장애인 선교회 LA지부

####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동안 주변의 방황하고 찢기고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며 힘을 얻게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이민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에게는 구제와 봉사과 취업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 조국의 한국엘림장애인 선교회 LA 지부의 사명을 맡은 해가 벌써 16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까지 인도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창립 16주년 감사예배를 올려 드리기를 소망하여 함께 이기쁨을 나누고져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해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고 또한 우리 사랑의 띠 선교회가 한국 엘림 장애인 선교회 미주 LA 지부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한국의 장애우 영혼구령 사역까지 도울수 있도록 성장 시켜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이 복된 자리에 동참하셔서 함께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띠 선교회 김천환 선교목사 외 회원 일동



강사 김성회 목사 김천환 선교목사 김민경 선교사 카이로스 울동팀  
하와이 갈보리 선교교회 사랑의 띠 선교회

- ▶ 일 시: 2015년 6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 설 교: 김성회 목사 (하와이 갈보리 선교교회)
- ▶ 울 동: 김민경 선교사와 카이로스 울동팀
- ▶ 예배장소: 1300 W. Olympic Blvd, #200 LA., CA90015 (사랑의 띠 선교교회)
- ▶ 연락처: Bond of Love Mission (사랑의 띠 선교회)  
Tel: (213) 736-6625 Email: BOLMUSA@HOTMAIL.COM  
WWW.BOFLMISSION.ORG or WWW.ELIMUSA.ORG

\*참석하시는 모든분께 후원 업체인 인디안 알로베라의 신 상품을 증정 합니다.  
\*저녁 식사는 6시 15분 부터 준비됩니다. (이중 주차는 금해 주세요)  
\*Parking 은 건물 뒷편 open 주차장과 7시 이후는 건물 좌우 대로에 세우셔도 됩니다.



# 신천지 모르면 “속수무책” 알면 “걱정 끝”

## 진용식 목사, 풀러신학교에서 이단 대책 세미나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이 신학생과 교회 지도자 및 성도들을 위한 이단 대책 세미나를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를 강사로 초청해 지난 15일 개최했다.

기자회견과 특강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진 목사는 “정통교회 성도를 미혹해 포교하는 신천지의 활동에 대해서 한인교회가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 목사는 “심령부흥회도 중요하지만 이단 대책 부흥회를 통해 이단을 예방하고 곳곳에 침투해 있는 신천지 추수꾼을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수꾼들은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해 1년에 전도하는 인원만 1만명”이라며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단 예방 교육 세미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목사는 “신천지는 이단 예방 교육 세미나를 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다 알고 있다”면서 “이단 교육 세미나를 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신천지의 포교대상 1호”라고 말했다.

이날 진 목사는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열거하며 1. 신천지의 교리 2. 신천지의 포교방법 3.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성경구절 및 교리,용어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 목사는 “신천지에 몸 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재교육을 통해 개종하는 확률이 90%가 넘는다”면서 “신학교가 이단 상담 과정을 개설해 이단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이단대책연구회 회장인 한선희 목사도 “신천지 문제는 예방이 우선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처럼, 속수무책으로 신천지에 포교 당하는 이민교회의 현



진용식 목사가 세미나에서 교회에 침투한 신천지 추수꾼을 분별하는 법과 그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실이 안타깝다”며 “반드시 이단 전문 연구자를 통한 세미나에서 성도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규 기자

목사이자 의사 배성호 교수의

# 완전한 치유, 완전한 건강 출판

목사이자 의사인 배성호 교수(토마스제퍼슨대학교 의대)가 연구와 기도 끝에 예수님으로 인한 치유와 건강에 대한 통찰을 담아 <완전한 치유 완전한 건강>이란 책을 펴냈다.

배 교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이민과 신경과와 뇌파 전문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저서를 집필했고 동시에 신학도 공부해 연합감리교회 목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JAMA의 치유사역 디렉터로서 미주 전역에서 건강과 신앙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성도들의 전인적 건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 교수의 저서 출판감사에배는 7월 6일 오후 7시 30분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린다. 배 교수는 참석자들에게는 저서를 증정할 계획이다. 출판감사에배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는 건강 세미나도 열린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원하는 것은 치유와 건강, 치유를 받으려면, 육체가 시리고 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환자의 투병 태도와 치료자의 진료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대인의 건강 관리, 치매를 방지하려면 등에 대한 강도가 이어지며 목회자, 사모, 선교사, 치유 사역에 관심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

세미나 참가비는 무료이지만 사전에 전화 310-995-3936로 예약을 해야 하며 교재와 식사도 무료로 제공된다. 이 모든 행사는 JAMA가 주최하며 OC한인목사회·여성목사회·원로목사회·평신도연합회와 효사랑선교회가 후원한다. 김준형 기자

#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열려

## 글짓기 대상에 조슈아 오 군, 그림에 오지민 양

사람들이 저에게 “넌 누구니?”라고 질문을 하면 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습니다. ... 집에서 한국문화와 학교에선 미국문화를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 일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성경을 일독했을 때 제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 부모님의 신앙 생활을 보며 ... 그런 부모님이 존경스러워 닮고 싶었습니다. ... 하나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통로로 사용되길 기도해 봅니다.-서예원 양(최우수상)

제3회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에서 글짓기에 조슈아 오 군, 그림에 오지민 양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글짓기에 서예원 양, 조셉 신 군, 그림에 에드워드 권 군, 조셉 한 군이 받았다.

이 공모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 아래 총 104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효사랑선교회는 자기정체성에 대한 물음에서 성경적이며 건강

한 효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바 있다. 선교회 대표 김영찬 목사는 13일 열린 시상식에서 “이민 사회에서 부모가 물려줄 것은 바른 신앙과 정직한 삶”이라고 언급한 뒤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자신이 가족의 중심에 있다는 정체성을 회복해 올바른 가치관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OC교협 김기동 회장, OC한인원로목사회 최승구 회장, 영 김주하원의원, 피터 김 라팔마 시장, 민주평통OC-SD지부 권석대 회장, 오렌지카운티한인회 김기동 회장 등이 축사를 보내왔고 CTS어린이 합창단과 시드오브워십 팀이 특별 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글짓기와 그림 부문에서 각각 장려상, 특별상, HEIVN 장학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이 수여됐고 특별상은 영 김 의원이 직접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격려했다. 김준형 기자

# “상처 어루만져 구원하는 사역에 감사”

## 생명의 전화 창립 17주년 감사예배

‘생명의 전화’ 창립 17주년 감사예배가 13일 오후 5시 30분 엘에이 소재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렸다.

원장 박다윗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감사예배는 설교에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 축사에 영 김 주하원의원과 백지영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의 축사는 이인복 이사가 대독했고 주 로스 앤젤레스 김현명 총영사와 최혁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는 별지를 통해 축사를 대신했다.

이날 박성규 목사는 ‘화평케 하는 자’(마5:9)란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여 한 영혼을 구하는 생명의 전화 상담원들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할 수 있다”며 “고단한 이민자들의 가정을 지키는 일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생명의 전화 모든 상담원들은 목회자와 다름

이 없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영 김 주하원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민사회에서 겪는 말 못하고 통들을 치유해 주는 생명의 전화에 감사한다”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 앞서 원장 박다윗 목사와 김문자 상담원(12기)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생명의 전화 측에 감사장을 전달해 왔다.

한편, 생명의 전화는 지난 1998년 6월 1일 2대의 전화 개통을 시작으로 한인들이 민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며 한 영혼을 구하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영 김 주하원의원(우)이 박다윗 원장(좌)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상담 전화는 213-480-0691, 866-365-0691이다.

이영인 기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 빛 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 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체진 특성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이석철 교수의 신앙산책

### 아버지의 눈물



이석철 교수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피난길에 미군 구조선을 올라타다 아들이 놓쳐버린 어린 딸을 찾으러 아버지는 다시 배에서 내린다. 그 아수라장에서 어린 아들을 붙잡고 아버지는 신신당부를 한다. 자기 대신 이제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가장의 최우선적인 책임이라고.

그 어린 가장은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간다. 서독에 광부로 가고 베트남 전쟁터에도 뛰어들다. 잃어버렸던 여동생은 이산가족찾기 방송을 통해 기적적으로 찾게 된다. 전쟁고아가 됐던 동생은 미국으로 입양되어 LA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그 아들은 백발 노인이 되어 아버지 사진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막순이도 찾았고요.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요? ...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오열하는 노년의 아들을 보며 나도 울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많은 동생들을 돌보며 힘겹게 살아오신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었다. 가난에 찌든 가족의 생존을 위해 땀부림치며 살아온 그 세대의 모든 아버지들이 불쌍해 울었다.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서 말이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 그런데 어머니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혜는 다른 것 같다. 우리 보통 어머니의 은혜를 크고 높게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은혜도 그에 못지 않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 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한꺼번에’ 기린다. 반면, 미국에서는 어머니날과 구별하여 6월 셋째 일요일을 아버지날로 기념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아버지날은 1957년에 메인 주의 상원의원이던 마가렛 체이스 스미스의 제안으로 시작돼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이다. 국가가 어머니날만 챙겨온 것은 “두 부모 중 한 사람만 편애한 것”이라며 아버지들을 40년 동안이나 외면해 왔다고 스미스 의원은 지적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는 ‘공경’이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함께 성경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으로 십계명에도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들은 분명 자녀의 공경을 받을 만한 분들이다. 오늘날 아버지의 존재와 위상이 점점 미약해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께 대한

진정한 공경을 회복해야 한다.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과 존중, 그리고 인정을 뜻한다. 특히 아버지들에게는 이러한 공경이 큰 의미를 갖는다. 때론 남자의 자존심까지 버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들이다. 그 깊은 가족사랑을 인정해 드리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선물이 아닐까. ‘국제시장’의 영어 제목도 ‘Ode to My Father’- 나의 아버지께 대한 헌사이다. 아버지의 헌신적 가족 사랑에 대한 칭송과 찬사인 것이다.

영화 속 주인공 덕수는 오직 아버지가 당부한 가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살아온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만하면 잘 살아온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힘들었던 삶을 아버지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진짜 힘들었다고 흐느낀다. 우리의 아버지들도 그런 인정과 공감을 받아야 한다. 자신들의 가족들로부터 말이다.

한국전쟁 이후 아버지들의 희생적 삶이 없었다면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견디며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을까. 또한 타국에서 이민자나 나그네로 살아온 세월 속에 아버지들의 노고와 희생은 얼마나 컸을까. 미국에서도 우리 교포사회가 이만큼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들의 공로가 실로 크다. 그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에 합당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것이 아버지 공경의 첫걸음이다.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서독에 광부로 간다. 그는 일하다가 탄광이 무너져 죽다가 살아난다. 미국에서 처음 아버지날을 기념한 것도 탄광의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그레이스 폴든 클레이튼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한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베트남 전쟁터에 가며 그것이 자기 팔자라고 덕수는 아내에게 말한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라며 “당신 인생인데 왜 그 안에 당신

은 없나구요?”라고 아내는 따진다. 베트남에서 죽을 고비들을 넘기며 덕수는 아내에게 편지로 답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 이 힘든 세상의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그렇다. 그게 우리 아버지들이다.

아버지의 역할은 정말 힘들다. ‘아버지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 노릇하기는 어렵다.’ 개그맨 이홍렬 씨가 쓴 책 제목이다. 그는 어머니를 사바느질하게 만든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다. 하지만 자신도 아버지가 된 후에 40대에 들어서서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애썼는지를 깨닫게 됐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 덕수는 아버지의 체취가 묻은 옷에 얼굴을 묻고 오열한다. 가족들을 위해 땀흘려 일했던 아버지의 냄새를 맡으며 그리움을 달랬던 것일까. 하정호 시인은 ‘아버지의 등’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만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 등의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아버지의 눈물은 대개 보이지 않는다. ‘속울음’이기 때문이다. 덕수는 한평생을 그렇게 속으로만 울었다. 가족들이 다같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흐로 운다.

덕수가 흘린 눈물은 아버지를 그리워 하는 눈물이다. 삶의 시련을 겪으며 가슴에 응어리져 쌓였던 서러움의 눈물이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가 흘리고 있을 수도 있는 눈물이다. 자녀된 우리가 함께 울어 드리고 닦아 드려야 할 눈물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진정성 있게 해야 할 일이다.

나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아버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원하며 작은 헌사를 그들에게 바친다.

아버지, 당신은 f-a-t-h-e-r입니다. 당신은 성실하신(faithful)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랑이 많으신(affectionate) 분이십니다. 당신은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teaching)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경스러운(honorable) 분이십니다. 당신은 격려하시는(encouraging) 분이십니다. 당신은 의지할 수 있는(reliable) 분이십니다.



세계아가페선교교회가 지난 14일 본당 증축을 감사하는 입당예배를 드렸다.

### 세계아가페선교교회 예배당 증축 완료

#### 오순절성결 총회장이 설교하고 축하패 전달

지난 14일 세계아가페선교교회가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1977년 개척돼 1979년 올림픽 길과 알바라도 길 코너에 있는 현 예배당을 구입해 사용하다, 지난 2006년부터 증축을 시작해 약 10여 년 만에 모든 공사를 마치고 입당하게 됐다.

티노, 동구권 성도까지 약 8백여 명 이상의 성도가 참석했고 모든 메시지가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통역됐다. 예배에서는 이 교회가 속한 교단 국제오순절성결교회의 더그 비숍 감독이 설교했다. 그는 설교에 앞서서 세계아가페선교교회의 활동과 목회를 격려한 후, 축하패를 김요한 목사에게 건넸다.

이날 예배에는 한인뿐 아니라 라



최학량 목사가 OCU 정기 모임에서 설교하고 있다.

### OCU 6월 정기 모임 열려

지난 6월 13일 남가주한국예배역기독장교회(OCU)가 정기 모임을 했다. OCU는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1시에 미주복음방송 건물 5층 도서관에서 모인다.

이날은 최학량 목사가 “불행이 준 축복(눅7:11-17)”이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지도목사인 이기홍 목사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해 진중세례식을 잘 지켰다고 보고했다.

### 월드비전센터 101일 안에 성경 통독

22일 오후 7시 30분 월드비전센터(원장 장재언 목사)가 무료 디지털 성경통독반을 개강한다. 이 강좌는 매주 한번, 101일 안에 성경을 통독한다는 목표로 15주 동안 진행된다.

에 맞게 디지털 기기로 성경 통독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진행은 ‘성경통독 길잡이’를 쓴 장재언 목사가 맡으며 사경회 방식으로 성경을 통독한다. 장 목사는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변화하지 않는 원칙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전하며 “정보화 시대

참가자들은 반드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컴퓨터 혹은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을 소지해야 한다.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 제목에 디지털 성경통독 등록이라 기재하고 한글 이름, 주소, 셀폰 번호를 적어 이메일 chang1014@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주소) 905 S. Euclid St. #108 Fullerton, 문의) 714-353-1992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2015 VBS JOIN US

탐미디어에서 준비한 더욱 풍성한 2015 VBS 아이템... 미리 준비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50**

VBS CD (Copy & Print)  
\$1 (Min. 50개)

~~\$75~~ **\$60**

VBS BANNER  
3 ft x 10 ft \$75

**패키지 상품**

아이베너VBS 아이템배너 2set  
+CD50장 +포스터30장

**\$250**

**VBS T-SHIRT**

VBS T-SHIRT를 탐미디어에서 주문 해야 하는 이유

- www.group.com보다 더 저렴한 가격 (옵션)
- 앞면에 교회 이름까지 인쇄
- LA 근교 FREE SHIPPING

어른 \$7.20 (일반사이즈 기준)  
어린이 \$4.20

**30장 \$50**

Poster (11 inch x17 inch)

\$10(5장)  
\$30(20장)  
+\$20(디자인)

**2set \$130**

2set \$135  
VBS 아이템배너 2set

## VBS 어린이 선물용품 coming soon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MEDIA TOTAL SOLUTION

**TOPMEDIA**

www.topmediausa.com

3170 E.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e-mail: info@topmediusa.com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한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나사로의 부활을 보으신 목적

요한복음 11:17-4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1.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예수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베다니에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는 나사로였습니다. 그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르가 병들어 심하게 앓자, 여동생들이 사람을 사서 갈릴리에서 전도하시는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소식을 접하시고 곧장 베다니로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완전히 죽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부활을 어떻게 이루어 내시는가를 보여 주시기 위해 죽는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에 그 사건에 앞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가 죽긴 죽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내가 가서 다시 살림으로 내가 부활의 주관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 내시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죽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갈릴리에 더 머무시며 전도하다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신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격정된 듯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곳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렵니까?' 그러자 주님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내가 깨우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느니라라는 말씀이 죽었느니라라는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진짜 육신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록 나사로가 죽고 썩어서 냄새가 풍기지만, 나는 말 한 마디로 썩어가는 시체라 할지라도 벌떡 일으켜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부활에 대해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 2. 마리아와 마르다의 제한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내려가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고 맞이했습니다. 첫 마디가 원망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죽은 다음에 오시면 무

슨 소용이 있습니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라도 내가 믿으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부활에 대한 약속을 다짐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 부활할 줄을 저도 알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시겠다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못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참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왜 안 믿어지십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언니의 기별을 듣고 달려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과 능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한적인 믿음이란 예수님의 존재를 깊이 알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명이 무엇을 위해 오셨으며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어하며,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안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었지만,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죽은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과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나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했더니, 담당의사가 '아마 잘하면 2개월밖에 못 삽니다. 혹시 수술하시면 6개월 더 살 수 있을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 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이제 두 달 아니면 여섯 달 남았으니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내가 미국에 있었는데 귀국한 후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가면서 아내에게 내가 폐암 말기가 되어 의사가 두 달 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의사가 그 이야기 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소원이고, 당신도 잘 만나다가 거기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되었고, 눈이 동그라지더니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급하게 30초 정도 하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 보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목사님 데

려 가실 일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교회와 선교를 위해 애써온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들어가 절차를 밟고 사전을 찍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보통 폐암 사진은 앓고 나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흔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전이되어 갔을 것입니다. 빨리 찾아서 다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렸습니다. '헛수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애셨는데 당신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애신 것을 당신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갑니다.'하고 나왔습니다.

한 달이 못되어서 몸이 아파, 삼성강남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종합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의사에게 '폐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의사는 '잠깐만 보세요.' 하면서 자료를 찾더니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폐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몸이 아파서 많이 앓았고, 미국 가서도 많이 앓았지만 감기가 안 걸릴 정도로 폐가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남아 있고, 믿어지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고쳐가며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한은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믿고, 그 이상은 못 믿겠다는 것이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의사가 죽는다고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과 일거리가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가며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부터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3.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육신의 존재와 가치에 집중할 뿐, 영혼의 소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 몽매하고 짐승같은 모습에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송장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되살리셨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 입체적이고 실감나는 증거를 연출하십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 오라"하시며,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역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일어섰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얼굴에 감겼던 수건도 벗기고, 삼베 얹었던 것을 다 풀어 놓으니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임 당함을 아시고, 내가 죽기 전에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시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불편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 국 선 교 설 교   |                               |              |                                     |
|---------------|-------------------------------|--------------|-------------------------------------|
| TV 한국 방송 설교   |                               | 한국 신문 설교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경복 기독교 신문    | 3면 설교                               |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해 외 선 교 설 교   |                               |              |                                     |
| TV 미국 방송 설교   |                               |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                                     |
| COX TV 워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AM1590                              |
| CTS TV        |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사카고 기독교방송    |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AM1190       |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
| 미 국 신 문 설 교   |                               |              |                                     |
| 기독일보          | 5면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
|               | 인터넷신문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
|               |                               |              | FM91.5(SCA)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장: Sevis I-20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명품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기독교대학(BA),목회학석사(M.Div),상담학석사,선교학석사,ESL,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조종권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us / aeuimaster@gmail.com



##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Houston, TX에 위치한 휴스턴 한인 교회(독립교단)는 45년의 역사와 자체성전과 기도원을 소유한 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조건

- 1) 목회비전과 철학이 있고 사랑으로 목양 하실 분
- 2) 보수정통 복음주의 신앙 소유자
- 3) 이중언어 가능한 분(한국어,영어)
- 4)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5) ATS 승인받은 정규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를 졸업하신 분
- 6) 미국에 체류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 7) 담임목사 나이: 31세-49세

### 제출서류

- 1) 이력서(한영 각 1부) 및 가족사진(본인, 사모 및 가족)
- 2) 신앙고백과 목회철학 각 1부
- 3) 본인 및 사모 그리고 가족소개서
- 4) 최근 설교 2편 CD 우편발송
- 5) 정규 신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6) 목사 안수 증명서
- 7) 추천서 2통(목회자 2명 이상), 추천인 연락처 기재

### 접수안내

- 1) 제출마감일: 2015년 7월 30일
- 2) 제출처: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이메일 접수도 가능: kcchoffice@gmail.com  
(설교CD는 우편으로만 보내주세요)
- 3) 교회 전화: 713-937-7444
- 4) 청빙위원장: 진상철장로 (휴대폰 713-498-3545/  
email: sangkumchin@gmail.com)

### 기타

- 1) 제출서류는 우편 및 이메일 첨부로 보내주시고
- 2) 서류심사 통과된 분에게는 추가서류와 면담과 설교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보장합니다.

휴스턴 한인 교회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담교회' 담임목사

## Pre-K/Kindergarten Pastor

유치부 전도사

### Descriptio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GSPC) is located East of Los Angeles in the city of Rowland Heights. We are searching for a part-time pastor to shepherd our preK-kindergarten (age 3-6) department. We are searching for a shepherd who will love, model, and teach our young children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 Qualification requirements are as follows:

1. Currently enrolled, or graduated from a Bible college or theology program at an accredited seminary. Verification WILL BE requested prior to hiring.
2.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Korean-American immigrant church and cultural context.
3. Fluency in English. Fluency in Korean is not necessary but this position requires at least som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Korean parents.
4. Previous children's ministry experience preferred but we will consider all applications.
5. A person of prayer.
6. Must have a family-centered ministry mindset, as parents are a crucial part of the ministry.

### Primary duties are as follows:

1. Direct and lead Sunday worship as well as Bible study each week.
2. Direct and lead Friday night fellowship each week.
3. Create and execute annual plan and budget for the kindergarten department. The annual plan will include activities and events such as: VBS, prayer meetings, and any other fellowships.
4. Oversee and lead a staff of Bible study teachers.
5. Collaborate and work with other pastors in the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
6. Report to the Christian Education pastor.

| Position  | Salary and Housing | Benefits |
|-----------|--------------------|----------|
| Part-time | \$1500/month       | none     |

a Resume with picture and Testimony  
2 or 3 letters of recommendation/must come directly to Clark Choi from the recommender via email or US mail  
mp3 or a youtube link to one of your sermons it would strengthen your application.

###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EMAIL: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Phone: 714.328.2866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이신 오세영 시인의 [열매]라는 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 둥글어야 하는가 /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탱자만은 둥글다. / 땅으로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 날카롭지만 / 하늘로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 뾰족하지만 /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 모가 나지 않는다. / 덤뻑 / 한 입에 물어 깨무는 / 탐스런 한 알의 능금 /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 그대는 아는가 /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 모든 생명의 원형들은 둥글다는 것을 비로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생명의 근원인 씨앗도 둥글고, 그 씨앗의 열매도 둥글다. 어린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배도 둥글고, 그 모든 생명들이 디딘고 사는 이 지구도 둥글다. 왜일까? 생명의 능력은 결코 날카롭거나 모가 나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말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말이 둥글어야 한다. 날카로운 말, 가시같은 말은 결코 다른 사

## 열매 맺는 말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람을 살리지 못한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말은 둥그런 말이다. 둥그런 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마음이 둥글어야 한다. 마음이 둥글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에 모가 난 부분이 깎여야 한다. 마음이 깎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마음은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만지실 수 있다. 하나님은 마음을 만지실 때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는 내 마음의 가시를 잘라 내신다. 성령은 내 마음의 굳은 살을 도려내시고 그 위에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시작케 하신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들이 시작된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둥그럴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들이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화평의 말을 할 수 있으며 온유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말이다. 이런 말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다른 이를 살리고, 어려움을 극복케 하며, 용기와 힘을 준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이 있다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마12:36)

말에는 심판이 있다. 말 때문에 다른 이를 실족케 하고, 다른 이를 넘어뜨리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러나 말 때문에 다른 이들이 살아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힘을 얻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생명의 길을 찾게 된다면 그 말에 상급과 칭찬이 주어질 것이다. 말의 열매를 맺자. 말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은 둥글어야 한다.

## 아름다운 얼굴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권을 받고 가족식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는 얼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은 웃는 얼굴일 것이다. 내가 웃으면 하늘도 웃고 땅도 웃고 자연도 웃고, 사물도 웃는다. 웃는 얼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거울 속의 나는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 속의 나도 따라 웃는다. 웃음도 연습이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웃는 연습을 하다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된다.

웃음도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하면 달라진다. 표정이 달라지고 그날 그날의 하루가 달라진다. 웃음을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밝은 웃음 속에는 보석같이 멋진

희망이라는 선물이 담겨있다.

이젠 웃어야 한다. 웃을 수 있다. 우리의 책상 앞에 웃음 거울을 붙여 놓고 들여다 보자. 또는 각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거울을 전화기 옆에 놓고 통화할 때마다 그 거울을 보고 미소 짓도록 해보자.

웃는 얼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당장 실패해 보도록 하자. 가장 작은 투자로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축복의 거울이 될 것이다.

거리를 거닐 때마다 놀라는 일 중의 하나는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에 웃음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 외에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없다.

백 번의 신음소리보다는 한 번의 웃음소리가 갖는 비밀을 빨리 터득한 사람이 그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다.

더 잘 웃는 것이 더 잘 사는 길이다. 더 잘 웃는 것이 더 잘 믿는 길이다. 더 잘 웃는 것이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다.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일평생 하나님께 웃음을 드림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 뭘 더 가져야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저야, 저 북녘 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계속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난 도대체 뭘 더 가지기 위해 기도하는가?" 계속 묵상이 되어지면서 더 이상 가질래야 더 가질 수 없을 만큼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위해 1분의 기도 시간도 아껴야 할 것 같다는 각오가 생겼다.

요즘 우리는 부족해서 죽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다. 작년에 중국교회 지도자들과 만났을 때도 공안당국의 핍박이 심해서 힘들지만, 이 정도의 핍박은 계

속 있어야 교회의 순결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백했던 말이 새삼 떠오른다.

요즘 기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 더 달라는 기도가 많이 줄었다. 어떡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한다.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은 더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누기 위해 몸부림치른다. 선교의 현장과 다음 세대를 향한 나눔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교회의 갱신에 필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기간, 취소되지 않은 또 하나의 컨퍼런스가 서울 신촌 일대에 있었다. 동성연애자들의 퀴어문화행사였다. 마치 영적 대결 구도와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세상적으로 더 가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더 내려놓고, 더 양보하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 영적 싸움의 구도는 바뀌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뭘 더 가져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을까?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 SELLA CARE®

## 셀라케어 효능사례

##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                  |   |
|------------------|---|
| 발작 · 자폐 · 무감각 증세 |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간질, 발작 증세, 자폐증에 무감각증으로 19년 동안 고생중에 셀라케어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음  |
| 관절염 · 변비 · 생리통   |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진통제 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통증이 가라앉고 변비도 없어졌으며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
| 중풍 · 마비 · 당뇨     | 15년동안의 당뇨합병증으로 고생 중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후 얼굴의 마비가 7개월만에 많이 호전됨.   |
| 일본 원자력 피해        | 선천성 뇌하수체호르몬 분비가 안 되어 하반신 마비, 간질, 정신박약, 비정상 성장에서 셀라케어 2개월 복용후 검고 말함. <b>토요타 유이토 2세(일본 제바) 090-9934-2333</b>                |
| 자폐증              | 7세 남자아이가 자폐증으로 셀라 케어 복용후 호전됨. <b>지민 엄(미국) 616-822-4627</b>  |
| 혈소판              | 3살 반부터 혈소판 수치가 50-29 까지 떨어졌다. 셀라케어 복용 후 한달 반만에 정상수치 (100-400) 로 돌아옴. <b>김예은(7세, 미국) 213-798-8767</b>                      |
| 방광암 · 임파선암       | 방광암 말기에서 임파선을 타고 전신전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한계.방광암, 1개월시한 셀라케어 1년 복용, 암세포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진단. <b>나카지마(일본 군마경 대카사씨) 080-3556-1951</b> |
| 간에 생킨 증양         |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없어짐. 참고로 고바야시 어머니가 약사임. <b>고바야시(32세, 일본 요코하마)</b>  |
| 녹내장              | 오래된 녹내장으로 고생중에 셀라 케어 2달 복용후 안과에서 정상으로 감진됨. <b>빅토리아(59세, 일본 동경) 8180-1330-2069</b>   |
| 혜장               | 혜장에 몰록, 셀라케어 3달 반 복용후 없어졌다고 의사가 진단함. <b>58세 목사 사모님(미국 TX) 972-620-2900</b>  |
| 식도염              | 심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거의 호전됨. 부기, 위장, 변비, 여드름, 피부 모두 효과 봄. <b>이은선(미국 MI) 616-822-4627</b>                           |
| 간질               | 16년동안 매일 여러차례의 간질로 인해 전혀 사회에 대한 경험을 못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건강이 호전되어 결혼도 함. <b>Eunice Park(미국) 213-604-1992</b>                     |
| 아토피 · 건선         |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지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b>Esther Yang(10세, 미국) 213-215-6991</b>     |
| 파킨슨              | 셀라케어를 파킨슨약(Sinemet)과 병행해서 복용하며 떨리는 증세와 몸의 허약함이 반전되었고 50% 줄 아저 18시간 비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옴. <b>John Kim(미국)</b>                |
| 심장               | 의사로부터 심장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권유로 셀라케어 2달 복용후 혈액이 맑아졌고 1년 복용후 수술을 안하게 됨. <b>Mr. Yoon(58세, 미국)</b>                        |
| 백혈병              | 직업 간호사로 지내다가 갑자기 백혈병 감진을 받게 되고 셀라케어를 1달 반 복용후 의사로부터 백혈구 정상으로 진단받음. <b>Petra(미국) 708-296-2085</b>                          |
| 반신불수 · 욕창        | 10년이 넘도록 혼자서 대소변이 불가능했으나, 셀라케어 3일 복용후 아들도 알아보고 복용 6달 후부터 몰라보게 좋아져 조금씩 걸음. <b>박경숙 (82세, 미국)</b>                            |
| 전립선암 · 부정맥       | 소변 힘들고 방에도 7번씩 소변을 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하였을, 셀라케어 2달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옴. <b>Tomas Park (92세, 미국)</b>             |
| 심한알러지 · 하지정맥     | 코알러지와 콧물로 밤을 세우는 고통 중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호전. 심한 심장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호전됨. <b>정수지(61세, 미국) 323-774-1138</b>                              |
| 비만 · 우울증 · 야뇨증   | 어려서부터 심한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LB였으나 셀라케어 2달 복용후 살이 빠지기 시작. 현재는 130LB로 유지됨. <b>Sam Yang(11세, 미국)</b>                            |
| 자가 면역 질환         |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혈액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고 1달 복용후 정상 판정받음. <b>Mrs. Kwak(미국)</b>           |
| 방광암 · 전립선        | 방광암 진단을 받고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깨끗해졌다고 함. <b>토요타 이찌로(일본 후지오카) 0903-146-0007</b>   |
| 약물중독 · 우울증       | 햇빛재단(미국) 오네시모 선교센터(미국)  |
| 강아지 백혈병 · 피부병    | 강아지가 백혈병과 피부병에 고생 하던중 셀라케어 단 2회 먹인후 치 료가 필요없게 됨. <b>김인숙 213-760-5699</b>  |

## 건강과 성경 이야기 57

건강해지려면 "제대로 걸어야" 라는 마사이 워킹법이라고, 아프리카 케냐에 사는 마사이족의 건강 비결로서 현대인들의 걸음걸이는 발바닥의 중압을 생각하고 발 앞쪽과 뒤꿈치만을 사용하여,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반면에 마사이 워킹방법은 발바닥의 중앙도 사용하는 걷는방법으로서 뱃살줄이기와 관절 및 척추건강과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어서 심장질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협심증, 심근경색등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보통 운동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걷기운동은 심장의 힘을 키우고 산소가 심장근육에 보다 쉽게 운반되게 함으로써 협심증의 위험을 줄여주고,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도 걷기운동을 통하여 예방치료가 좋은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걷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놀라울만큼 변화될것인데, 걷기운동을 하고싶어도 노약자나 이미 걷기조차도 힘든분들에게는 소용없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잠시 성경말씀을 살펴보면 신 후에 이런분들도 힘차게 걸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민수기 28장,29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땅의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각 절기들과 예물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과 29장과 레위기의 일 부내용을 종합해 놓은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내용은 매일드리는 예물과 일주일에 한번드리는 안식일예물, 한달에 한번드리는 월사,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해서 애굽에서 나온것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이 50일 지난후에 행해지는 절기로서 첫열매를 드리는 칠칠절,떡추절,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 한해의 시작을 알리며 나팔을 부는 나팔절, 개인의 죄와 민족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 수장절,장막절,초막절이라고 해서 광야생활 40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물로서는 수송아지,수양,어린양과 수염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에스더에서 나오는 부림절과 신약에서만 기록된 성전을 깨끗히 정화한다는 뜻의 수전절이 있는데, 요즘도 가끔 보는 촛불이 9개 달린 촛대의 그림이나 모형 또는 실물이 수전절을 뜻합니다. 민수기 28

장1절로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찌니라 이런것은 속죄제는 히브리어 9장 10절로 6. 이런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말겨둔 것이니라 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이게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5.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죄를 없애는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전까지에만 유효한 것이였고,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이 속죄제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기록인데, 히브리어1장부터 10장까지에 더 잘설명 되어있으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다시 건강칼럼으로 돌아와서 어떻게하면 노약자도 힘차게 걸을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에는 기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혈액순환이 잘되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에너지도 생기게 됩니다.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사람도 몸속의 에너지가 부족한것이고 걷는것이 힘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분들에게는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영양제를 권해드립니다. 복용하신후에 3일정도 지난면 걸음걸이에 자신이 생기게 되는데, 그이유는 적혈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운동을 반복하는 3일이면, 혈액순환이 잘되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수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유태인 특수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무료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M3에 관한문의는 213-435-9600번 입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www.sellacare.com](http://www.sellacare.com)

|                |              |                    |              |                      |              |               |              |
|----------------|--------------|--------------------|--------------|----------------------|--------------|---------------|--------------|
| 본사(LA)         | 213,435,9600 | LA별몬 마틴약국          | 213,382,9718 | 플러튼 흡소핑              | 714,496,7887 | 뉴욕,뉴저지        | 201,983,8333 |
| 시온약국           | 213,344,9730 | LA별몬 갤러리아마켓약국      | 213,388,4100 | 에나하임                 | 714,469,5809 | 시애틀           | 206,331,6655 |
| LA 아드모아약국      | 213,385,2135 | 가주건강종합백화점          | 213,388,0091 |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 909,595,4003 | 씨애틀 (건강마을)    | 206,229,5466 |
| LA 한국마켓약국      | 323,464,3925 |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 213,380,5103 | 얼바인                  | 949,330,9009 | 센루이스,캔사스      | 314,570,9629 |
| LA 베스트약국       | 213,385,9926 | 가디나                | 714,351,0440 |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 909,594,6370 | 하와이(생약촌)      | 808,947,8086 |
|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 213,384,6323 |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 818,637,7708 | 랜초쿠카몽가               | 909,987,9500 | 시카고 알바니약국     | 847,699,1511 |
| 에스약국           | 323,733,7788 | 벨리                 | 818,642,8223 |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 949,251,0193 |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 224,406,0337 |
|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 323,733,7200 | 벨리 소망 약국           | 818,832,2757 |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 562,402,8859 |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 770,457,1717 |
| LA 다운타운        | 213,798,3333 | 오렌지카운티             | 213,247,2244 |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 562,402,6972 | 텍사스 (로알백화점)   | 972,620,2900 |
|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 213,739,3030 |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 714,228,9212 |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 562,402,6970 | 플로리다/NC/SC    | 770,457,1717 |
| LA 6가 버질약국     | 213,384,1200 |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 714,636,2588 |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 626,839,2868 | 캐나다           | 604,872,1669 |
| LA 사랑방         | 213,351,9552 |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 714,730,2707 | 로렌하이츠                | 626,912,5727 | 세크라멘토/아리조나    | 602,332,6492 |
| LA내쳐영양센터       | 213,739,8874 |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 714,690,0120 |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 310,619,7758 |               |              |
| 뉴서울호텔 (팔달)     | 213,386,5310 |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 714,670,7979 | 토랜스                  | 213,268,0844 |               |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 한교연, 동성애 등 현안 대응 위한 '법제특별위' 신설

임원회서 각종 안건 처리, '청지기교회' 확대 실천도 논의키로



한교연이 임원회에서 한국교회의 다양한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 제 4-3차 임원회가 12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교연 회의실에서 열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5월 총회를 마친 4개 교단의 임원을 교체하고, 대사회 대정부 현안 대응을 위한 '법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에서는 기성 총회장 유동선 목사, 예성 총회장 송덕준 목사, 기하성(서대문) 총회장 서안식 목사를 각각 공동회장으로, 기성 부총회장 여성삼 목사, 예성 부총회장 이동성 목사를 각각 부회장으로 인준했다.

임원회는 또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등 대사회 긴급 현안을 전용

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게서 보고받고, 법적 대응을 위한 법제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독도지킴이119(대표회장 주녹자 목사)의 요청에 따라 독도수호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주요 안건이었던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청지기교회' 확대 실천 계획은 준비위원회(위원장 전광훈 목사)로 넘겨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차기 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이 밖에도 오는 7월 예정된 통일포럼을 비롯, 서울광장 쿼터축제 동성애 반대 대책 경과, 전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에 대한 법적 대응,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이날 임

원회에서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청지기교회' 후원 헌금 중 급일봉을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종언 목사에게 전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임원회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엠베서더호텔에서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주재로 열린 신임 교단장 및 주요 교단 총회장 총무 간담회에서는, 동성애·이슬람·안티기독교 등 긴급 현안 타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신임 교단장 상견례를 겸한 이날 간담회에는 기성 유동선 총회장 여성삼 부총회장, 예성 송덕준 총회장, 기하성 서안식 총회장 등 3개 신임 교단장과 합신 우종휴 총회장을 비롯한 주요 교단장과 총무 등이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 한기총 대표회장 가처분 신청자들

#### “자격정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16일 오전 임원회를 열고 최근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을 제기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등을 결의했다. 총 10명이 자격정지, 1명이 제명당했다. 이번에 자격정지된 이들은 최근 가처분을 제기하고 프레젠테이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영훈 대표회장의 행보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임원들 대부분은 “사전에 대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기총 밖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부적절했으며, 한기총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고, 기자회견에 관계된 이들은 “우리들의 주장은 정당했고 한기총이 아닌 이영훈 대표회장 개인을 문제 삼았을 뿐”이라고 맞섰다.

가처분 신청자들은 △기하성과 그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동성애 성직자를 인정하는 교단들의 연합체인 WCC와 NCCK를 즉각 탈퇴할 것 △이영훈 목사는 천주교와 통합측, 기하성이 신앙직제일치를 합의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거기서 탈퇴할 것 △정관과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임명한 윤덕남 목사를 총무직에서 즉각 해임할 것 △한기총 정관에 의해 영구 제명 퇴출된 박중선 목사를 공동회장직과 이단대책위원장직에서 해임할 것 △기독교 정통개혁교단의 세례를 부정하고 재침례를 강요한 그리스도교단(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를 지칭한

듯)을 한기총에서 퇴출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학 검증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이에 대해 △기하성(여의도순복음)은 WCC에는 가입돼 있지 않고, NCCK에는 행정보류 상태이며,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표회장 당선 전에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기하성(여의도순복음)은 천주교와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 △윤덕남 총무는 정관에 따라 임명했다 △박중선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홍재철 대표회장 당시 제명을 해제했다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약 한 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인 끝에 당사자들이 소송 취하와 기자회견 사과를 거부함에 따라, 표결을 통해 찬성 37표와 반대 4표로 자격정지를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엄기호 목사가 과거 자신이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등록금 1억 원이 한기총 발전기금으로 제대로 사용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홍재철 목사가 최근 임원회에서 “대표회장 재직 당시 한기총의 운영을 위해 30억 원을 모금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조사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홍재철 직전대표회장에 대해 모든 회의 참석을 불허하기로 결의했다. 조사위 구성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류재광 기자

### 기성 유동선 총회장 “정직한 교단, 통일 준비 회기 될 것”

기자회견 통해 현안 입장 밝혀, 업무 인수인계식도 진행



유동선 총회장(가운데)이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진호 총무, 오른쪽은 여성삼 목사 부총회장.

지난달 열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09년차 총회에서 총회장에 취임한 유동선 목사(춘천중앙교회)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소견을 밝혔다.

특히 지난 총회에서 전원 소환된 총회재판위원 7인과 헌법연구위원 7인이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교단에서 이런 일(전원 소환)이 처음 벌

어졌는데, (소환된 이들이) 지난 1년간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법적으로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대의원들이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결정한 사안에 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교단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삼 목사 부총회장(전호동성

결교회)과 성해표 장로 부총회장(부산예동교회), 김진호 교단 총무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동선 총회장은 “부족한 사람이 총회장이 됐는데, 정직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단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10년 후 교단과 교계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 관심을 쏟고 청소년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 첫 실시된 전자투표에 대해선 “발상은 굉장히 좋았고, 투표를 빨리 끝내자는 목표로 시작됐지만 시행 과정에서 오차가 생겨 오히려 평소보다 3-4배 시간이 소요돼 대의원들에게 굉장한 피로를 안겼다”며 “시도는 좋았지만 보완이 필요하고, 좀 더 지나서 좋다고 생각하면 다시 도입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대용 기자

### 탈동성애인권교회연합 출범

100여 교회, “동성애 폐해 저지에 최선”

“진정한 성소수자”들을 위해 100여 교회가 뭉쳤다. ‘탈동성애인권교회연합’이 15일 오후 서울 논현동 갈보리채플 서울교회(담임 이요나 목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에서의 회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날 출범식은 1부 예배와 2부 총회, 3부 출범식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 결과 상임대표에는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에는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

이요나 목사는 “탈동성애 운동을 하면서 그동안 참 외로웠는데, 오늘 100여 교회가 참여해 주셔서 든든한 동지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교회가 함께하지 않으면 탈동성애 인권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교회들의 동

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현재 사회 곳곳에서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옹호·조장·확산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특히 2005년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항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는 조건 중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들 모르게 삽입되면서, 인권위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교회들이 탈동성애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보호 운동에 앞장서며 동성애의 폐해를 저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탈동성애인권교회연합을 결성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대용 기자

**희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 '패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 세금감면 못 받아도 동성애 반대

## 美 교육 지도자들 연방상하원 지도자들에게 서한

성경적 관점을 지지하는 기독교 기관을 보호하는 법안에 대해, 70명 이상의 기독교교육 지도자들이 지지 서한에 서명해 존 베이너 미국 연방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최근 발송했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이달 중으로 판결할 전망이다. 허용 판결이 나오면 미국 국세청(IRS)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지지하는 기독교 학교들과 기관들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 학교는 3만 개가 넘는다. 앞서 도널드 베릴리(Donald Verilli) 법무부 차관은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에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기독교 학교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독교교육 지도자들의 서한은 특히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당·유타)이 조만간 발의할 ‘정부 차별금지법’(Government Non Discrimination Act)을 지지해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는 정의를 지지하는 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리 상원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발의했던 이 법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당시 상하원에서 모두 1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리 의원은 “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에 대한 자유를 축소시킨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며 “종교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따라 역사적으로 보장돼 왔으며, 교회와 종교기관들의 사역을 정부가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교육 지도자들은 “미국이 지금까지 수호해 온 자유를 축소시키는 부당하고 비헌법적인 일들에서, 미국인들과 학교를 보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결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 학교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잃을 경우, 다른 교육기관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서한은 또 세금감면 혜택이 학교들이 사회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에 있어서 세금감면 혜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미국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의 설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 학교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잃을 경우 학교는 물론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Roberts)는 “기독교학교들이 ‘동성결혼 커플이 기혼자 기숙사에 살도록’ 허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베릴리 법무부 차관은 이에 대해 “연방법에는 현재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정부가 민법과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렸다”고 답했다.

서한은 이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동성결혼 커플이 기독교학교의 기혼자 기숙사에 살도록 하는 연방법이 발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서한은 “세금 감면 혜택을 잃고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들은 결혼과 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교육기관들은 동성애 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관계 외의 성관계도 금지하는 종교적 전통을 붙들고 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이 신념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서한에는 “미 정부가 종교사학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없앨 경우, 결혼과 관련 없는 서비스들에 대한 보조금과 계약, 재정모금 혜택 등도 취소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포함됐다.

이 서한에 대한 서명은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가 주도하고 있으며, 러셀 무어(Russell Moore) 남침례회 윤리·종교자유위원회(Southern Baptist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위원장, 키스 위베(Keith Wiebe) 미국기독교학교연합(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회장, 알버트 몰러(Albert R. Mohler, Jr.) 서던침례신학대학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총장,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FRC 회장 겸 루이지애나 칼리지(Louisiana College) 이사 등을 포함해 총 74명이 서명했다.

강혜진 기자

# 미국장로교(PCUSA)

## 오바마에 수단 목회자들 석방 노력 촉구

미국장로교(PCUSA)는 최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수단에서 투옥된 두 명의 목회자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남수단장로교단에 소속된 야트 마이클 목사와 피터 예인 레이스 목사는 현재 간첩활동, 헌법 훼손, 반정부 정보 발표, 공공 안전 교란, 종교 모욕, 모의, 부족 간 증오 선동 등의 7가지 혐의로 지난 1월 이후 계속 구속된 상태다.

미국장로교 선교부의 대외협력 책임자인 케이시 멜빈(Kathy Melvin)은 12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운데 헌법체계 약화, 주를 상대로 한 간첩행위 및 전쟁 수행 등 3가지는 중범죄로 여겨져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목사는 작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다”면서 “교단의 서기인 그레디 파슨스 목사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두 목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수 년 동안 남수단장로교회와 협력해 왔다. 마이클과 레이스 목사는 카르툼에 소재한 바흐리복음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뒤 수단의 정보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전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감시하는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에 따르면, 이들은 코베교도소로 이감된 후 아내와 변호사를 포함해 그 누구와도 면회를 허용받지 못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 IS 난민들에게 교회가 활력 불어 넣어

이라크의 기독교인 난민들이 IS(이슬람국가) 때문에 난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혀 위축돼 있지 않다고 마이클 나지르-알리 주교(Michael Nazir-Ali)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전 로체스터의 영국성공회 주교이자 Oxford Centre for Training, Research, Advocacy and Dialogue의 회장인 나지르-알리는 헤리티지재단의 토론회에 참석해 “야만적인 IS에 의해 고향을 잃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기독교인 난민들의 사기가 언론들에 보도되는 것과 달리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예루살렘 주교들과 함께 칼데아 가톨릭교회의 초청으로 북부 이라크의 난민촌들을 방문했는데, IS 때문

에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사기가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난민촌에 있는 교회가 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덕분이다. 그는 “교회가 난민들의 소속 교단·교파에 관계 없이,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집이나 옷, 음식, 그리고 다른 생필품 등을 지급하면서 열심히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쿠르드 지방정부가 쿠르드족만이 아니라 모든 난민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덕분이다.

그는 “쿠르드 지방정부와 교회가 난민들을 돕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집과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LA 지역**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를 섬기며, 선교를 영감을 주는 교회  
평신도교회 (1기)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6-2233 / www.LASarang.com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LA 선교교회**  
내 직업을 불하리, 믿음으로 성령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며, 소망으로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LA 연합교회**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om

**구인성장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F(323)932-0788 / kuinholy@hanmail.net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스.친 초.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965-3443 / F.(626)965-0404 / sunhanchurch.com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함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청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목) 오전 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최승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오전 11시(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oad, Thousand Palms, CA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 선함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고쳐(마5:45)  
1. 민족을 넘어서 2. 신앙을 넘어서 3. 국기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springs.onmam.com

**양성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백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일(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주일) 오후 07:30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d7@hot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주일)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토)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이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망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u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장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오후 2:00(장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예배 오후 8:00(장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레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이성현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EM 1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성경예배 - 저녁 7:45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구역모임 매월 1회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토) 오전 10:30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곽락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희 역 담임목사**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CA 90670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주일예배 오전 10:00 오후 6:30(토)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본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뉴욕성결교회 제39주년 예배 및 제2대 담임목사 취임, 선교사 파송 안수식이 14일 거행됐다.

### 뉴욕성결교회 담임에 강기성 목사 취임

39주년 맞아 제2대 담임 취임, 임직, 선교사 파송 함께

뉴욕성결교회가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아 2대 담임 강기성 목사 취임, 권사 및 집사 임직 예식 및 선교사 파송예배를 14일 오후 5시 예루살렘성전에서 개최했다.

장석진 1대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 스태튼아일랜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지난 39년간 힘써왔던 뉴욕성결교회는 강기성 2대 담임목사의 취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강기성 목사(48세)는 숭실대 철학과와 연세대 신학과 학사, 서울신대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미국 고든 콘웰신학교(M.A.)와 영국 에딘버러대학교(M. Th.)에서 구약학 과정을 마쳤으며 미주성결교회 2001년 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목회 경력으로는 인천 부평제일교회(1995-1998), 미국 보스턴성결교회(1998-2001) 등에서 부교역자로 섬겼으며 첫 담임으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성결교회(2003-2015)에서 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섬겨왔다.

강기성 목사는 이날 취임 소감을 통해 "말씀 양육과 제자 훈련을 위해 계속 힘쓸 것"이라며 "성도들이 지금처럼 계속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1부 기념 예배는 박순찬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박성빈 장로 기도, 류태우 목사 성경봉독, 시몬찬양대 오케스트라 찬양, 이대우 목사 설교, 근속패 증

정식 순서로 진행됐다.

이대우 목사는 '강하고 담대하라'(수 1:1-9)는 제목의 설교에서 "임직자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세가지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강한 자가 된다는 것,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형통한다는 것"이라며 "훌륭한 선수는 기본이 잘 되어 있듯이 뉴욕성결교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기본을 지켜나가며 가나안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담임목사 취임예식은 이대우 목사의 인도로 전우철 목사 기도, 담임목사 소개 및 서약, 치리권 부여, 취임패 증정, 축하 영상, 강기성 목사 답사, 장석진 장로 감사패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3부 임직식에서는 안수집사와 권사, 명예권사가 임직했으며 4부 선교사 파송식에서는 알바니아로 파송되는 최조영 선교사가 참석한 목회자들의 안수기도를 받았다.

임직자 대표 황구연 안수집사는 답사를 통해 "부족한 저희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면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조영 선교사는 "오늘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춘천에서 가장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의 기억이 난다"면서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할렐루야대회 제4차 준비기도회 참석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 "할렐루야대회, 형식적 집회 안돼야"

제 4차 준비기도회, 임실행위와 함께 개최

"이번 할렐루야대회가 형식적인 집회가 아닌 뉴욕교계가 에스겔 골짜기의 군대로 회복되는 생명력 있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대회 제 4차 준비기도회가 12일 오전 10시 은혜교회(담임 이승재 목사)에서 90여 명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 3차 임실행위위원회를 겸해 열린 이번 기도회는 이승재 목사(미자립교회 후원분과)의 인도로 주효식 목사(기도분과) 기도, 이상호 집사(이사장) 성경봉독, 유상열 목사(이단분과) 특송, 박희소 목사(증경회장) 말씀, 통성기도, 한기술 목사(서기) 광고, 이만호 목사(뉴욕목사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올해 할렐루야대회의 성공적 개최여부가 향후 뉴욕교계의 영적 부흥과 직결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번 할렐루야대회의 흥왕과 이를 통한 뉴욕의 영적 각성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다.

대표기도를 맡은 주효식 목사는 이번 할렐루야대회와 관련, "형식적 대회를 경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

별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집회가 되게 해 달라"면서 "행사를 통해 뉴욕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행사 후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는 대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박희소 목사는 '건강한 교회'(행2:42-4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그 칭찬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잘 명심하고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통성기도 순서는 김연규 목사(기획분과), 유용진 목사(행사협력분과), 이준성 목사(사업분과), 황규복 장로(자문위원)가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뉴욕 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 '할렐루야 2015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하여', '할렐루야대회의 진행을 위하여' 등을 기도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주예수교회가 카리타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난한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다.

### “가난한 자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전해” 여성 노숙자 35명 초청, 함께 숙식하고 교제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소재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6일~13일까지 노숙자 여성 35명을 교회로 초청해 온 성도들과 함께 숙식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CARITAS(Congregations Around Richmond Involved To Assure Shelte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노숙자 숙식 사역에 주예수교회가 참여한 것은 올해로 11년째이다. 카리타스(라틴어: 자선,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프로그램은 리치몬드 지역 내 155개 교회와 사회복지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일주일씩 노숙자들(여성그룹, 남성그룹, 가족그룹)을 보살피는 리치몬드 지역의 독특한 노숙자 재활사역이다.

이번 카리타스 기간 동안에는 여름방

학을 맞이하여 주일학교 어린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참여하여 식사봉사, 세탁봉사, 샤워봉사, 취침봉사 등 다양한 섬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처음으로 취침봉사에 참여했던 여운홍 집사는 “바쁜생활이지만 온 가족이 참여해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인호 선교목사는 “교회의 온 성도가 함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되는 카리타스 선교는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코니아(섬김)와 코이노니아(교제)의 실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와의 어려운 이들과의 나눔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누리는 은혜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명랑운동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즐겁게 준비체조를 하고 있다.

### “아이처럼 명랑해지는 명랑운동회”

#### 제일장로교회, 전 성도가 하나되는 명랑운동회 개최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가 7일(주일) 5부 예배를 비전센터에서 드린 후 체육 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청년회에서 주관한 ‘명랑운동회’를 열었다.

서삼정 담임목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천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짧지만 은혜로운 메시지로 명랑운동회의 취지를 대신했다.

어린 아이들부터 학생, EM청년, KM청년,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청팀과 홍팀으로 나눠 열린 응원과 함께 OX퀴즈, 돼

지씨름, 접시 옮기기, 릴레이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마음껏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선수들과 응원단들은 연합여선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떡볶이, 어묵, 수박, 아이스크림, 스낵 등을 먹으며 지치지 않는 체력을 자랑하기도 했다.

홍팀의 승리로 마무리된 운동회 중 각 팀의 MVP로 뽑힌 청팀의 이정현 장로, 홍팀의 이유진 청년은 각각 냄비와 태블릿 PC 등의 상품을 받았고, 경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선물을 받고 돌아갔다.

김 앤더슨 기자



미주 다일공동체가 2명의 선교사를 탄자니아로 파송한다.

### 박종원 목사, 이종호 집사 탄자니아로 파송

#### 미주 다일, 빈민촌에서 밥퍼 사역과 함께 ‘호프스쿨’ 열어

지난 12일(금), 다일공동체(원장 최일도)에서 박종원 목사와 이종호 집사의 탄자니아 선교사 파송식이 열렸다.

미주 다일공동체 원장을 역임한 박종원 목사는 15일, 이종호 선교사는 22일에 각각 탄자니아로 출발해 ‘복음과 빵’을 전하게 된다.

박종원 목사는 “탄자니아 다일공동체가 현지 NGO에 등록된 상태다. 현지 대사관 직원들이 와서 법포 봉사를 하기도 한다. 60% 이상이 무슬림인 탄자니아에서도 극빈자들이 많은 빈민촌에서

밥퍼사역과 호프스쿨이라는 대안학교를 운영해 영어와 수학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공부를 도와 탄자니아 미래의 지도자로 키워내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매달 30달러로 호프스쿨에서 공부하는 한 아이가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1:1매칭으로 아동결연이 이뤄지면 그 아이에게 학비와 학용품이 매달 후원하게 된다”면서 많은 동참을 요청했다.

윤수영 기자

###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침아예배 오후 8: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래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오병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중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여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 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처부, 유초중부, 중교동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GLMC) 주일 오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일룡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RETHEM.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 새벽 찬양기도회 새벽 6: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렐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7:20 PM (성경 66권 특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분별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사역(가정교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말씀) 12:2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회장 주혁모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영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성경적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교동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래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앨버틴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후 12:30 김용철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후 12:30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앨버틴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인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 309-7551  
Pastoryckim@yahoo.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7:00 김민재 담임목사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교동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래중교동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토)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주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탐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 351-0124 (Cell), (562) 475-4323 (Church)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본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모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섬김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교회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아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5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타학교생도 환영)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전교생에 개인 랩탑 컴퓨터 수업(교과서 대체 및 방과 후 온라인 수업 보강)
- 토론 위주 수업으로 학생의 발표력, 창의성, 협동심 강화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입학 문의: (213) 400-3588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킨더 학생모집**





이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 잘 알려지지 않은 동성애의 실체

2015년도 6월은 미국의 역사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달이다. 미연방 대법원에서, 미국 전역에서의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 내리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내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는 37개 주이고 아직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는 나머지 13개 주이다. 그렇지만 이 나머지 주도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결정하면 어쩔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구두논쟁을 벌이고 있는 관련 판사 9명 모두가 올바른 선택을 하여 동성결혼 합법화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마음 한 뜻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 불과 6년 사이에 동성결혼 합법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기간 동안 20개 주에 이르는 숫자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미 주류 미디어들이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미국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사실들이 있다.

### 동성결혼은 모두 시민들의 투표로 합법화되었나?

정작, 미국 시민들의 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곳은 총 20개 주 중에서 겨우 3개 주밖에 안된다는 사실이다. 그 중, 8개 주는 주법원판사들이 임의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으며, 9개 주는 입법부에서 주 상하의원들끼리 결정하여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사실상, 민주적으로 시민들의 투표로 된 곳은 동부에 있는 메인, 메

릴랜드, 워싱턴 단 3곳 뿐이다. 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준다. 아직도 미국에는 소망이 있으며 모든 도시마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들과 판사들, 그리고 교육위원들이 세워지는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 미국 내 실제 동성애자 비율은?

2013년과 2014년 여러 설문조사들에 의하면,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미국내 동성애자 수가 약 40-50%에 이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잘못 발표된 후 수정되지 않은 킨제이(Kinsey) 보고서 때문이기도 하다.

친동성애자인 킨제이가 내놓은 보고서가 미국 전체에 동성애자들은 적어도 10%나 된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잘못된 기사를 수정하지 않았다. 설사 수정하였다 해도 매우 작게 기사를 실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았을 확률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독자들에게 미국내 동성애자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기억되게 혼선을 가져다 준다.

최근, UCLA에서 법과 공공기관 정책을 맡고 있는 윌리엄스연구소(Williams Institute)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들의 실제 숫자는 3.8%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9백만 정도라고 한다. 의학연구소자기관인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나 인구조사국인 센서스(Census)와 거의 비슷한 보고이다.

하지만 사실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3.8% 중에서도 자신을 게이 또는 레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총 1.7%밖에 되지 않고, 1.8%는 자신들을 양성애자(bisexual)라고 응답하였고, 그동안 너무 적어서 숫자가 나오지 않았던 성전환자(트랜스젠더 Transgender)들의 숫자가 0.3%정도라고 발표되었다.

인구조사국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동성애자들이 극히 소수였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동성애자들이 매우 적어서 조사결과를 계산하기가 어려웠지만, 2012년 이후 조금 늘어난 동성, 양성, 성전환자(LGBT)들로 인해, 동성애자들을 가정 단위로 계산했는데, 그레도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밖에 안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성전환자(트랜스젠더)들이 미국 전체의 0.3%정도라면 어린이들 중 트랜스젠더는 얼마나 될까? 어쩌면 0.1%도 될까말까할 것이다. 그런데 그 0.1% 이하의 성전환자 학생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 정치인들이 AB1266같은 법안을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이유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참고로 AB1266은 아직도 법정 논쟁 중이다.

동성애자들이 입양 어린 아이들을 3살 때부터, 주로 유치원 아이들을 남자아와 여자 아이들로 하여금 옷을 바꿔 입혀서 어떤 남자 아이가 가장 이쁘게 여장하고, 어떤 여자 아이가 가장 멋지게 남장하는지 콘 테스트까지 열고 있다.

동성 라이프 스타일은 건강하다? 인생의 모든 선택에는 필수적

인 결과들이 따라 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미국의 가장 알려진 의학 연구 조사기관인 CDC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HIV 감염으로 가장 많이 고생 또는 죽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로 동성애자들이다.

CDC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지난 5-6년 사이, 매년 미국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백 십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중에서 6명 중 1명 꼴인 15.8%의 사람들은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이에 감염된다고 한다.

### 2008년-2010년 사이 가장 많은 에이즈 감염자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되기 시작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에이즈에 가장 많이 감염된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라는 CDC 발표가 있다. 그 조사 발표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동성애자들 사이에서의 에이즈 감염은 12%나 증가되었다. 그 중에서도 남자와 남자 사이의 성관계를 갖는 게이들 사이에서는 에이즈 감염이 78%나 늘었고, 동성애자들 전체에서는 68%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2010년도 연령별 에이즈 감염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13세에서 24세 사이의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새롭게 에이즈에 감염되었는데, 그 숫자가 72%나 되며, 같은 13세에서 24세 중에서 전체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숫자는 55%로서 최고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립학교의 친동성애 세뇌교육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 에이즈 감염은 얼마나 무섭나?

캘리포니아 주만 조사한 결과, 에이즈 감염 때문에 죽은 사람들 중, 게이 동성애자들이 가장 높았는데, 60.8%가 에이즈 감염으로 죽었다는 보고가 있다. 주사나 약 사용에 의해 감염되어 죽은 사람들은 13.8%, 이성애자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죽은 경우는 10.8%로 에이즈 감염으로 죽은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수치는 게이 동성애자들이라고 CDC는 보고하고 있다.

### 에이즈 감염 치료 연구 비용은?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에이즈 감염을 막고 에이즈 치료제 연구를 위해 매년 국가 세금 중 121억 불을 사용하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지 말아야 할 동성애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부모, 또는 잘못된 주사나 약 사용으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숫자는 4% 미만이다.

동성애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치명적이고,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죽음의 길이다.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 미국의 큰 도시들은 교육,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동성애 라이프 스타일이 정상적이고도 건전한 것이라고 자녀들에게까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TVNEXT.org](http://www.TVNEXT.org)를 참고하면 된다.



세라 김 사모 TVNEXT 설립자

### 이주연의 산마루 서신

영성의 길을 가는 이들은 인생의 길에서 실패하거나 이별을 하거나 아픈 순간이 오면 살아오던 발길을 멈추어 세우고 지금 가는 길이 맞는가를 살피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는다.

중동에서 유행하던 메르스가 아시아의 동쪽 끝인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일이 의학적로나 행정적인 면에서 어찌하다 이리 되었는가는 대략 확인과 증명이 된 듯하다.

그리고 경제적 여파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도 대략 드러나고 예

측이 되는 듯하다. 심한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로 어려운 중에 중국인 여행자들이 급감하고 영화관이나 백화점이 텅텅 비고 모임 등이 대다수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올해의 경제 성장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 서서 그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어떻게(how)가 아니라 왜(why)라는 물음 속에서 이번 메르스 사건이 주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결국 운명 공

동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병이 들면 나도 병들고 내 가족도 병들고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지 않는가!

둘째는 정직해야 서로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음을 깨닫고 정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 메르스 유행 지역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의사에게도 숨기니 죽는 이도 생기고, 죽음의 위협 아래서 의사 간호사는 물론이고 함께 있었던 무고한 이들도 격리되고 일상의

삶이 중지되고 있다.

셋째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의 책임과 할 바를 먼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사건에 대하여 누구를 탓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러나 인생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닐까

이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지 않을 경우 다칠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되새겨야만 한다. 그리고 메르스의 위험이 이 땅의 가진 이나 체나 정부나 모두가 공동의 운명임

을 깨닫고, 각자 자신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자각의 사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메르스로 인하여 당하는 아픔과 질병의 공포와 위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능가할 것이 상의 값진 것을 얻어내는 일은 되지 않을까!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번영하고, 생각하는 백성이야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길이 살아 남으리라.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교회를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I-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혜택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박사과정 (한 주간, 인텐시브로 강의)  
교육 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석사과정 (100% 온라인)  
온라인 목회학 석사  
신학연구석사  
신학연구상담학석사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in Biblical Studies with Biblical Ministres Emphasis)**  
성경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 목양사역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위과정입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소지자



**교육목회학 박사 (D.Ed.Min.)**  
일반 교육학 박사(Ed.D.)와 동등학위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교육을 다루는 학위입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 교육학과목이수자 혹은 기독교교육학석사학위 + 신학과목이수자



**목회학 박사 (D.Min.)**  
목회학 박사과정은 성경적 모델 연구를 통해 목회 현장에서의 실천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소지자



**온라인 목회학 석사과정 (M. Div. Online)**  
(온라인) 정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은 본교만의 특별한 과정입니다.  
입학자격 : 정규 학사 학위 소지자

사이트: [www.mbts.edu/ko](http://www.mbts.edu/ko)

연락처: 816-414-3754, [ks@mbts.edu](mailto:ks@mbts.edu)



#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KONICA MINOLTA



###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                                     |                                     |                                     |                                     |                                      |                                      |                    |              |                           |                   |
|-------------------------------------|-------------------------------------|-------------------------------------|-------------------------------------|-------------------------------------|--------------------------------------|--------------------------------------|--------------------|--------------|---------------------------|-------------------|
| C554e<br>Colour B&W<br>55/55<br>ppm | C454e<br>Colour B&W<br>45/45<br>ppm | C364e<br>Colour B&W<br>36/36<br>ppm | C284e<br>Colour B&W<br>28/28<br>ppm | C224e<br>Colour B&W<br>22/22<br>ppm | Dual Scan<br>ADF<br>160opm<br>Duplex | Dual Scan<br>ADF<br>80opm<br>Simplex | Emerson<br>Driven! | USB<br>Print | Colour<br>Internet<br>Fax | Mobile<br>Support |
|-------------------------------------|-------------------------------------|-------------------------------------|-------------------------------------|-------------------------------------|--------------------------------------|--------------------------------------|--------------------|--------------|---------------------------|-------------------|

\*1 \*2



Simitri with Biomass \*Optional : Fax & Finisher



# 케직(Keswick)운동의 영성(I)

- 목차-
- I. 케직운동의 시작: 역사적 기원
- II. 케직사경회
- III. 케직운동의 영성

**머리말**  
오늘날 한국교회는 초창기의 거룩성과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기독교 본래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하나의 대안이 1907년의 평양 대각성운동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한국교회 초창기의 영성은 큰 틀에서 청교도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청교도 영성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875년 성공회 목사 하트포드-베터스비(T. D. Hartford-Battersby)가 시무한 성 요한 교회에서 개최한 이래 오늘날까지 14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케직사경회와 연결될 수 있다. 케직사경회는 성공회 목사로서 강해설교자인 이반 홉킨스(Evan Henry Hopkins)가 첫 사경회의 주강사로 초빙되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성공회 주교요 케임브리지대학 리들리홀(Ridley Hall)의 학장 핸들리 모울(Handley Moule)은 1884년 9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케직사경회에 참석하여 이반 홉킨스의 설교를 듣고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을 직면하고 예수를 완벽히 구속자로 받아들이고 케직운동의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였다. 저명한 영국성공회 성직자 프레벤다리 웹-웹로(Rev. Prebendary Webb-peploe)도 케직운동의 가르침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케직운동은 미국의 복음주의 성결운동에도 영향을 끼쳐, 미국 복음주의자 무디(D. L. Moody), 무디의 절친한 친구요 침례교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고던(A. J. Gordon), 예일대와 예일신학부 출신인 무디성경학교 교장 토레이(R. A. Torrey), 장로교 출신의 초교파주의자 피어슨(A. T. Pierson)도 영향을 받았고, 케직운동의 교사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무디의 부흥운동, 특히 그가 1886년부터 시작한 대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을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들(맥코믹 신학교 학생이었던 윌리엄 베어드와 사무엘 모팻 등)을 결심하도록 만들고, 한국의 평양대부흥운동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한다. 토레이의 성령론은 한국의 초기 선교사 하디(Robert A. Hardie, 1860-1949)와, 무디의 선교적 도전에 감동을 받은 맥코믹신학교 출신의 한국 선교사들에게 전수되어, 1903년의 원산부흥운동과 1907년의 평양부흥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1910년 한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하고 성경학교 설립을 약속한

피어슨(A. T. Pierson)의 유언으로 설립된 학교가 오늘날 평택대학교(전신 피어선성경학교)다. 그는 당시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케직운동의 교사요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피어슨은 20세기 초 케직운동의 일환으로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선교하였고 피어선성경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가 발전하여 오늘날 평택대학교가 세워졌다. 평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피어슨의 저서들을 번역함으로써, 케직운동에 대하여 역사적 기원과 그 정신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한국교회에도 한국복음주의협의회를 중심으로 6년 동안(1985-2001년) 케직사경회가 소개되고 여러 교회(할렐루야교회, 사랑의교회, 부산초량교회, 소망교회, 충현교회, 강변교회 등)에서 집회를 하였다. 이것이 한국복음주의협의회(KEF, Korean Evangelical Fellowship)는 케직영성과 불가분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65년부터 2007년 은퇴 시까지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존 스토틀(John Stott)가 케직사경회에서 42년간 설교하였다. 존 스토틀은 20세기 하반기에 케직사경회를 대표하는 설교자로서 주강사였다. 케직사경회는 지금도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매년 여름 1만여 명이 참석하고 있는, 유서 깊은 부흥운동이다. 소망교회 담임목사 김지철은 다음같이 케직사경회를 특징짓는다. “무엇보다 케직사경회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성결과 헌신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주되심, 삶의 변화, 복음전도와 선교, 제자도, 연합과 일치 등 다섯 가지 목표를 천명하고 지금도 초교파적인 말씀축제를 이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입력: 2014.01.24 14:54 존 스토틀의 케직사경회 설교 모은 「그리스도처럼」)

**I. 케직운동의 시작: 역사적 기원**  
1870년대 초반에 이르러 영국의 복음주의가 퇴조하였다. 산업혁명의 여파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자 중상류층의 관심은 교회에서 여기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영국교회는 이신론(deism)의 합리주의(合理主義)와 고(高)교회(high church)의 의식주의(儀式主義)라는 쌍둥이 적에 의해 위협을 받았다. 자유주의자들은 스포츠나 오락을 지원함으로써 시대적 조류에 적응하였으나,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교회와 사회의 구별을 허물어뜨렸다. 복음주의자 스펄전(Charles H. Spurgeon, 1834-1892)의 세속주의에 대한 철저한 저항은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논쟁만 일으켰다. 이때에 일어난 복음주의 운동이 중상류층 신자들 가운데 크게 확산된 ‘더 높은 영성’(the higher spirituality)을 추구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18세기 초중반기에 일어난 웨슬리나 윌필드의 부흥운동은 주로 광부와 근로자들 중심의 대중들의 운동이었는데 반하여,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케직운동은 중상류층을 지지층으로 하여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일어났다. 성공회 신학자 이반 홉킨스는 케직운동의 첫 초빙 주강사요 지도자로서, 그가 편집하여 출간하였던 월간지 『신앙의 삶』(Life of Faith)을 통하여 영국 교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케직운동의 교사였던 미국 선교사 피어슨(A. T. Pierson)은 소책자 케직운동(The Keswick Movement)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873년 영국에서 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운동은 기울어 끊임없이 넓어지고 점점 깊어지며 더욱 세차게 흐르는 강과 같은 것이었다. ... 미국인 복음 전도자 로버트 피어설 스미스(Robert Pearsall Smith)와 그의 아내 한나 스미스(Hannah Withall Smith)는 둘 모두 거룩한 삶(holy life)에 관한 책과 소책자를 쓰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운동의 발달에 관여하였다.”(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신현수 역, 『케직운동』, 생명의 말씀사, 2001, 17). 로버트 피어설 스미스, 영국 성공회 전문신학자요 캠브리지 대학교 핸들리 모울(Handley C. G. Moule), 마이어(F. B. Meyer)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1828-1917)와 같은 케직운동의 지도자들은 1870년대 이후 영국인의 영적 삶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머레이는 화란 개혁교회(Dutch Reformed Church) 출신의 남아프리카 선교사로서 독일 뫼틀링엔(Mottlingen)의 루터교 축사(逐邪)목회자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

트(Johann Christoph Blumhardt)의 영향을 받아, 현대적 의미에서의 오순절주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감리교도의 성결론에 열려 있었으며, 그의 저서들은 오순절주의를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1873년 영국 런던 YMCA의 정오 기도 시간에 모인 여러 소집회에서 평신도 전도자인 스미스 부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를 바로 물리쳐야 하는 의무와 특권”에 관하여 증언하였다. 이 모임에서 청중들에게는 “지속적이며 분명하며 즉각적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지체하지 않고 입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확신에 찬 간증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 작은 규모의 집회들이 점점 많은 참석자들로 붐비게 되었고 점차 넓은 장소에서 더 큰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케직운동』, 20). 그리하여 1874년에 동역자들이 새롭게 자신을 헌신하기 위한 마일드메이(Mildmay) 집회, 하노버(Hanover) 광장 집회 등 같은 2일 또는 3일 동안의 특별집회들이 있었다. 마일드메이 집회는 성공회 목사 윌리엄 페너파더(William Pennefather)가 1856년 이후 처음에는 바네트(Barnet), 그리고 1864년 런던 북쪽 마일드메이(Mildmay) 공원에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적 성결을 주제로 해서 매년 개최한 성결운동 집회였다. 이 모임에는 그 시대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 1869년에는 천 명이 운집하였다. 이러한 특별 집회는 맨체스터(Manchester), 노팅엄(Nottingham), 레스터(Leicester), 그리고 유럽 대륙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Dublin)에서도 열렸다. 이러한 집회에서의 특징은 오늘날 와그너(Peter Wagner)를 중심으로 신비로운 체험을 위주로 일어나는 신사도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하고 이러한 소망을 실천하는 열망이 넘치는 운동이었다.

이러한 성결운동에 미국의 무디(D. L. Moody)와 그의 동료 생키(Sankey)가 영국에 초청돼, 부흥설교를 통하여 영향을 끼쳤다. 무디와 생키는 1873년 6월과 1875년 8월 사이에 영국 전역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무디는 윌리엄 페너파더의 초청을 받아 마일드메이에서 설교하였다. 아일랜드 부흥집회 후에 1874년 3월부터 7월까지 영국에서의 부흥집회를 위하여 미국에서 런던에 도착한 무디와 생키는 브라이턴 집회에 참석하여 설교했

으며 이들의 성결운동에 감동받았다. 1874년 옥스퍼드의 사경회에서 한 성직자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나는 나의 사역에서 커다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대중들이 왔다가 갔지만, 거의 결과는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이 옳다고 믿을 수 없었으며, 나의 형제들의 일부가 소유한 영적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하여 왔다.”(Mr. Grane from Shanklin, Meeting. at Oxford, 210). 케직운동의 전신인 옥스퍼드 집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옥스퍼드 집회의 참석자들은 “예배에서 능력의 비밀”을 발견했다. 피어슨은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이러한 집회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보다 깊은 죄와 필요에 대한 의식, 보다 풍성한 복의 기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이 있었고, 아마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성향이 새롭고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이다.”(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케직운동』, 20). 이것은 보다 높은 영적 삶을 추구하는 성결운동이었다. “이것은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 곧 성질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죄의 마지막 분기 지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진리를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찾는 일” “죄와 결핍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승리케 하는 힘을 새롭게 경험하는 운동”(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케직운동』, 20-21)이 시작되었다. 죄는 지성의 눈을 가리고, 떨쳐버릴 수 없는 습관의 줄에 얽어매며, 그 희생자들을 우상과 미신의 멍뜰에 잘게 갈리게 하여 마귀를 즐겁게 한다.

그러나 이들 케직운동의 선구자들은 신자들과 사역자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실망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기도의 호흡을 할 수 있으며, 그분의 강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추구하였다. 영국과 그 밖의 나라에서 열린 여러 집회들을 통하여 이들은 이러한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였다. 이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에 대한 승리, 마음의 순수함,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섬김의 능력 등을 체험하게 되었다.”(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케직운동』, 22). 수백 명의 신자들이 이러한 집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계속)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슬로, 바이블

말씀회화공동체 | 두란노 | 344쪽

18인의 목사·교수가 성경을 내러티브·문학으로 읽고 깨달은 메시지를 내러티브 설교로 전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핵심 이론과 더불어 수년간 말씀 앞에서 씨름하며 깨달은 현장의 노하우와 감동을 풀어놓았다. 단순 설교집이 아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전할지 상세하게 안내한다. 저자들은 내러티브 문학은 기승전결을 갖춘 드라마와 같아, 한국 성도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한다.



#### 한국 교회 큐티 운동 다시 보기

정성국 · 지형은 · 송인규 | IVP | 2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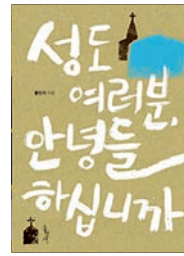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한국교회를 위한 탐구’를 모토로 설립된 교회탐구포럼 5번째 시리즈이다. 지난 4월 25일 실제 포럼도 열렸다. 정성국 교수는 성경 해석학적 입장에서 큐티의 효용과 한계를 말하고, 지형은 목사는 갱신의 입장에서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소개한다. 송인규 교수는 큐티의 40년사를 논한다. 4부에서는 큐티 사역자들의 실제 큐티 이야기가 좌담 형태로 소개된다.



#### 성도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황인각 | 홍성사 | 2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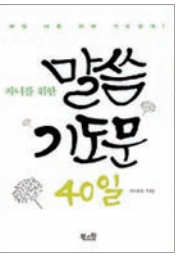
20년간 자의·타의로 9차례 교회(선교단체)를 옮겨다닌 저자가 7년간 적어 내려간 고백. 평신도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의 문제, 그리고 평신도가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썼다. 이는 사랑에 근거, 교회의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교회의 허물을 내 삶에서 먼저 깨닫고 발견하며,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고, 주신 은사를 적극 사용하는 것 등이다.



#### 자녀를 위한 말씀기도문 40일

이대희 | 복스원 | 184쪽

40일간 자녀와 같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가 생각해야 할 로드맵을 ‘5성’이라고 하는 책. 5성은 영성·인성·다양성·전문성·창의성이다. 이것들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전인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교육은 영성으로,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책을 토대로 자녀에게 기도문을 써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REVIEW

# “회의주의 시대, 복음의 영광으로 위로”

###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좁은 마가복음1」 펴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가 강해서 「좁은 마가복음1」(성서원)을 펴냈다. 저자는 시대적 배경과 원문을 통해 마가복음을 차근차근 해석해 나간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진정한 의미의 복음서’라고도 불린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복음’이 마가의 기록에 의해 최초로 공식적인 문서화가 됐기 때문이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인 영적 안내서였다. 마가복음이 쓰인 A.D. 65~70년 당시 로마에 거주하

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았다. 더욱이 변영의 도시 로마의 화려한 물질문명을 접하며 상대적으로 그들이 지켜온 신앙을 초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출판사 측은 이 책의 리뷰를 통해 “이처럼 참혹한 박해와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의 죽음 등을 겪으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절망과 함께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와 같은 질문이 자리잡게 됐다’면서 “그런 그들에게 간결하고도 확신에 찬 마가의 메시지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던져주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이 믿고 기다리던 예수



좁은 마가복음1 송태근 | 성서원 | 278쪽

그리스도가 로마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에 큰 위로와 희망이 얻은 것”이라며 “그렇게 그들

은 ‘복음’을 위해 다시금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은 역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을 이어갈 소명을 받았다”며 “삶의 각처에서 기독교의 절대 진리와 교회의 존재를 향한 심각한 조롱과 냉소가 가득하고, 교회는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잃은 지 오래다. 더욱이 동력이 되어야 할 진리에 대한 확신마저 큰 타격을 입었다. 2천여년 전, 마가의 공동체가 정말 가운데 고민했던 질문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출판사 측은 “마가복음은 이러한

질은 회의주의 시대에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낸다”며 “또한 간결하고도 확신에 찬 마가의 메시지는,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외롭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을 북돋아준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태근 목사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원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박한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전한다”며 “그가 안내하는 마가복음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자”고 제안했다. 김진영 기자

# 이레 에미나 다용도 세제

## 우리 집에는 20가지 이상의 화학 세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안의 모든 세제는 친환경 무공해 「이레 에미나 다용도 세제」가 대신 합니다.

이레 에미나 다용도 세제는 토양에서 발견한 생물에 이로운 균류를 이용하여 산화를 막는 효소를 연구 개발하여 화학제품을 대신한 친환경 다용도 세제 제품입니다.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거울, 세차, 어항, 냄새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 가꾸기를 한 개의 이레 다용도 친환경 세제로 통일하여 비용과 물을 절약할 뿐 아니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지킵니다.

**특별 사은품**  
이레 에미나 1 Box(1kg: 4인 가정 1년 사용량), 「밥도둑, 구입하신 분에게 「생생팩 5Kg용」 1장 특별선물

**【가정 필수 제품: 밥도둑】**  
밥 지을 때 밥솥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 선물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 사용 효과

- **세탁:** 작은 양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굼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공평이, 화학물질, 갈마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굼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여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기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비누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황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하면 허연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냉장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2~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3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문의: Yirrh Wellbeing Co. **이레 웰빙** Tel:323)316-6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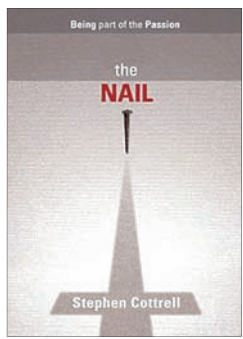
# 스티븐 코트렐의 「The NAIL」

못을 쥔 채, “나무에 달린 분” 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보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자아성찰과 명상은 기독교의 영성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으로, 언제나 성경이나 하나님, 상황 등 타자를 대상으로 둔다.

그러나 기독교 경건 생활에서도 어느 종교 못지 않게 내면을 들여다 보는 행위가 있는데, 바로 회개이다. 하지만 고해성사와 달리,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도, 음악도 없고, 아무런 분위기가 잡혀 있지 않은 장소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투쟁과 자기 변호 등으로 이미 합리화에 몰든 우리가, 과연 진솔한 고백을 할 수 있거나 할까?

저자인 영국 첼름소포드(Chelmsford)의 주요 스티븐 코트렐(Stephen Cottrell) 역시 그런 고민 가운데 사순절 예식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보다 더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독특한 순서를 준비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가져와 예배당 한가운데 던진다. 그리고 그 옆에 커다란 못 하나를 두는데, 회중 가운데 누군가 갑자기 나와 그 못을 들고 마치 자신이 로마 군인인 것처럼 변론을 펼친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니, 탓을 하려면 본디오 빌라도를 탓하라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본디오 빌라도인 척하며 그 책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야바는 가롯 유다에게 미룬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역할을 한 사람은 “호산나를 외칠 땐 언제나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회



The NAIL  
Stephen Cottrell | SPCK | 74쪽

중에게 떠넘긴다. 그리고 그 연기자들은 못들을 마치 성찬식의 성체처럼 회중에게 나누어 준다.

이 순서는 당시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예식에 연극을 도입함으로써, 청중에게 동일화 갈망(wishful identification)을 이끌어내 그것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로 연결시킨 것이다.

코트렐 주교는 이런 식의 예식을 몇 번 거행하면서, 로마 군인, 본디오 빌라도, 가야바, 가롯 유다 외에 세 인물을 첨가했다.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 빌라도의 아내이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책으로 펴내기 위해 치밀한 플롯을 짜고, 인물들의 대사를 시적으로 훌륭하게 다듬었다.

각 인물의 장은 성경 묵상(신약의 관련 내러티브 구절과 구약의 관련 운문 구절), 자기 변호, 책임 전가, 회개 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각 인물의 자기 변호와 책임 전가는, 회개를 가로막는 무의식 속 자기 합리화를 끄집어내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본서의 베드로는 마치 자신은 예수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실제로 예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핑계를 댄다. 로마 군병은 그저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며, 빌라도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어쩔 수 없었다며 가야바를 나무란다. 가야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 대의를 시행했다고 자기를 변호하며 예수의 제자였던 유다를 비난했고, 유다는 예수가 문제였으며 오히려 화를 낸다.

막달라 마리아와 빌라도의 아내는 다소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막달라 마리아는 관찰자로서 예수를 더욱 부각시킨다. 그녀가 취한 비폭력과 사랑, 어린 양의 모습을.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예수가 죽은 시점에서 독백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악몽을 꾸며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 빌라도를 지켜봄으로써, 후회할 짓을 했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올 불안과 공포, 괴로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나 가슴 깊이 와 닿도록 전달한다.

그 후 책은 각 인물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합리화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며, 진정한 회개의 방식을 알려준다. 마지막에는 부록으로 사순절 묵상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로 사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성경공부 교재의 목적 뿐 아니라 신학적 깊이와 아름다운 표현을 동시에 갖춘 이 책을, 수련회나 성경학교에서 극을 위한 기독교 문화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해 본다. 문학이라는 특성을 이토록 잘 살려 회개로 이끄는 책이 또 있을까?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완독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 책이 한 국어로도 소개되기를 바란다.

진규선 목사  
서평가 · 번역가

#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어령, 먼저 떠난 딸 이민아 목사 추모집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어령 | 열림원 | 402쪽

“네가 태어나던 날 나도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났다.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네가 태어나는 순간 나도 아버지가 된 것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누구의 아들이거나 누구의 남편이었다. 누구의 아버지는 아니었다.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어머니가 될 준비를 시작한다. 하지만 남자는 다르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아버지가 된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되는 거지.”(33쪽)

“네가 처음으로 혼자 회전목마를 타던 날이 생각한다.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도 혼자서 목마를 타겠다고 부들부들 졸라댔다. 아빠는 잠시 망설였지. 하지만 어느새 훌쩍 자라 혼자 목마를 타겠다는 내가 자랑스러웠다.”(26쪽)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지난 2012년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이민아 목사를 추모하는 글을 모아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를 냈다. 딸의 출생에 감동받았던 일을 비롯해 시험을 치르면서 경쟁사회로 들어간 딸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혼란스러워한 이야기, 딸의 첫사랑과 결혼식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배우고 느낀 이야기, 딸의 투병으로 영혼의 눈을 뜨게 된 이야기 등을 담았다.

이어령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그에게는 따라다니는 직함이 많다. 문학평론가, 예제이스트, 소설가, 희곡작가, 시인 등 문인의 이름 외에도 대학교수, 기호학자, 언론인, 일본 연구가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서울 올림픽과 월드컵 등 주요 국가 행사 기획자로도 역량을 펼쳐왔다.

이 책에서는 직함 속에 숨겨진 자

연인으로서의 그를 만날 수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남편이자 아버지, 나아가 할아버지인 이어령의 민낯이 공개된다. 또 이어령이 글을 써온 6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가려졌던 아픔을 끄집어냈다.

이어령의 딸은 유년시절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의 굿나잇 키스를 기대하며 서재 문 앞에서 그를 불렀다. 하지만 일에만 몰두하던 그는 딸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이어령은 그 시절을 회상하며 뒤늦게나마 글로써 딸에게 ‘굿나잇 키스’를 보낸다.

“할명수로 너의 첫 만남을 맞이할 뻔한 아빠가, 네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서야 아빠의 자격증을 딴 아빠가 뒤늦은 인사를 한다. ‘반갑다 민아야.’ 이것이 너에게 보내는 나의 첫 굿나잇 키스이다.”(43쪽)

“너에게 보내는 오늘의 굿나잇 키스는 결혼시장에 늦게 나타난 것에 대한 뒤늦은 사과야. 너는 얼마나 초조하게 날 기다렸을까. 영영 아빠가 안 나타나면 어쩌지. 신부 화장을 해서 울 수도 없었겠지. 다시 손을 잡아라. 다시 카펫 위를 걸으며 널 인도하라. 너는 감옥을 입은 하늘의 신부. 장엄한 결혼 행진곡을 울리거라. 쇼팽의 장송곡이 아니다. 지상의 아버지가 천상의 아버지에게도 인도하는 날. 이번에는 늦지 말아야지 하늘의 신부야.”(144쪽)

이어령은 머리말에서 “사람들은 남에게 자기의 우는 모습이나 눈물 자국 같은 것을 보여주기를 꺼려한다”며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자기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수돗물을 켜놓고 울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마음 속에 개겨두었던 글들이 급기야 이런 책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아직도 내 딸에 대해서 쓴 이 글들이 출판되어 나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가시처럼 마음에 걸린다”며 “다만 이 글들이 나와 내 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딸을 잃은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세상 모든 이에게 바치는 글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미안해, 엄마 아빠도 몰랐어

2~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내집 마련/희망/꿈을 포기한 7포 세대로 불리며, 주변의 우려 섞인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걱정 대신의 시선이 아닌 진심 어린 위로의 말과 격려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독자들과의 추천이 이어지고 있는 <미안해, 엄마 아빠가 몰랐어> 한 권에는 아픈 청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포근한 글이 가득하다.

<미안해, 엄마 아빠가 몰랐어>는 60년 동안 엄마로서 살아온 저자의 고백과 후회를 담은 감성 에세이다. 책을 통해 모든 부모가 아이에게 하

지 못했던 ‘미안해’라는 말을 전하며, 청춘들을 위로해 주고 있다. 이어서 먼저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괜찮아, 용기를 가지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며 응원과 조언을 아낌 없이 전하고 있다.

“미안해, 엄마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기에 너에게 잘못된 길을 강요했어. 너는 누구니, 너는 뭘 원하니?” 엄마는 이제 그것을 존중하려 해. 가장 너다운 모습으로 너답게, 당당하게 ‘나만의 별을 지어보렴.’ 이와 같은 저자의 용기있는 고백과 뒤이은 격려는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아이에게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를 과거의 응원 메시지를 대신하여, “모두 너와 똑같은 고민을 한다. 너는 오늘도 열심히, 잘살고 있어”라 말하며, 무조건적인

위안을 주는 엄마가 되기로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라도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곁에 두고 읽으면 좋을 힐링을 위한 추천 에세이다.

한편 저자는 21세기 한국형 인성 리더십 <강강수월래>를 창안했으며, 현재 <쉰나는별>의 대표를 맡고 있다.



미안해, 엄마 아빠도 몰랐어  
염도경 | 국일미디어 | 200쪽

송경호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약이 경혈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 T.213.487.0691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우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장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현 FDA임상 2차 실험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계속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er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성기하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완료,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상세화자, 책자, 반쪽공인배, 전문)  
junimedia.com

전도용품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고서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지 선물용 장영, 실고서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1, 101 Los Angeles, CA 90057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이하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육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

**국제 가족 건강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Hair News Salon**  
-헤어뉴스살롱-

Hanna(헤나)  
Tel. 213-383-5916  
Cell. 213-604-2118

3450 W. 6th St. #107-A, LA, CA 90020 (Kenmore & 6th)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틈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한달 \$5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01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 Are Your Ministry's Religious Liberties Protected by Law?

### Handbook Offers Legal Guidance for Churches, Non-Profit Organizations

BY RACHAEL LEE

Two organizations collaborated to create a free legal resource for churches, ministries, and schools to protect themselves if issues related to religious liberty were to occur.

The 44-page handbook is called "Protecting Your Ministry," and was created by 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and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The handbook comes as more and more lawsuits involving same-sex couples and Christians in businesses have been brought to attention by the media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Without soul freedom we have no other liberties," said Russell Moore, the president of the ERLC. "The church cannot outsource its convictions to the state. I am grateful to partner with 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to produce this resource to help equip churches on how to remain faithful to our mission in a culture that often disagrees with our message."

The handbook features stories of Christians who have recently been involved in legal cases, as well as legal checklists for churches, Christian schools, and Christian ministries (which include "a broad spectrum of nonprofit, faith-based organizations," the handbook says) to ensure that they have the broadest religious liberty protections under the law.

Statements of faith, religious employment criteria, facility use policies, religious mission statements, and codes of Christian conduct are among the several aspects included in the legal checklists. The handbook also includes samples of such statements or policies for groups to reference.

"A new concept -- that 'sexual liberty' trumps religious freedom -- has begun to impact churches, ministries, and individual Christians across this nation," the handbook states. "Alliance Defending Freedom created this manual to help you prepare for the legal intrusions some around the country have already faced, and for other threats on or near the horizon."

## Students Explore Identity Through Writing and Arts

BY JUNHYEONG KIM

"I pray that I, who received much love from God and my parents, would be used as a channel through which God's kingdom would be expanded, and build up those who are in weary and difficult circumstances." (Hannah Seo)

The third annual "Hyo" Writing and Arts Contest Award Ceremony took place on Saturday morning at Fullerton Presbyterian Church.

Joshua Oh and Jimin Oh received grand prizes for the writing and arts portions, respectively. Hannah Seo was the first runner up for the writing portion, and Joseph Han and Edward Kwon were first runners up for the arts portion.

This year's contest focused on the theme, "Who Am I?" and received 104 submissions. Hyo Sarang Mission, which hosted the contest, said that it had hopeful expectations that students would be able to learn a healthy and biblical perspective on how they could honor their parents as they explore their own identities.

"Those who are aware of their identity are also aware of what they should be living for," said Young Chan Kim, the president of Hyo Sarang Mission.

Young Kim, Assemblywoman for the 65th District, and Peter Kim, the Mayor of La Palma, were among several leaders who sent their congratulatory remarks for the contestants.



About 40 Christians gathered at the recent workshop and prayer meeting centered on doing ministry work in North Korea.

## "We're Going to Be Faithful and Pray Until Reunification Happens"

### 'Adopt815' Hosts Workshop on North Korea Field Work

BY RACHAEL LEE

Some three dozen Christians, mostly Korean Americans, gathered at a workshop event at Azusa Pacific University on June 13 to learn more about how to get involved in ministry work in North Korea, and to pray for the nation.

The meeting was hosted by a group called Adopt815, which is aiming to mobilize churches and ministries in Southern California to come together for a prayer event on August 15. The date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but also the beginning of the divis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Saturday meeting took place 70 days before August 15, and was part of a series of meetings that Adopt815 has hosted since last August 15, including one in January.

"We want as many believers as possible to unite for this cause this year," said Gina Kay from the Adopt815 organizing team on Saturday.

The Saturday meeting featured Jamie Kim, the director of Reah International, and Christine Park from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as the two main speakers.

Kim shared Reah International's approach to doing ministry in North Korea and Northeast China, and said that Reah is focusing on not only sending Christian professionals into the North through organizations and agencies, but also supporting them while they are there with resources and accountability.

"90 percent of singles who did work in China or North Korea came back disillusioned and feeling defeated," Kim said. "So we realized it wasn't enough just to send these field workers into North Korea."

Some ways Reah hopes to provide support for expat field workers in North Korea is by hosting retreats, and creating small Bible-centered accountability groups, for example.

Christine Park shared a brief testimony about her father, who suddenly passed away while doing ministry in North Korea. Park's father, who was sent as a missionary to Mongolia, saw the strategic value of Mongolia in doing field work in North Korea, and took the opportunity to do so.

"There were three things my dad said he would live and die for," Christine Park said. "For his country, for love, and for God, the gospel."

Those who gathered also participated in corporate prayer: that those who are doing field work in North Korea would be strengthened; and that the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would be mobilized to come together, and to care for those in North Korea.

Meanwhile, Adopt815 is planning for a three-part event on August 15: early dawn prayer, a prayer meeting in the afternoon, and a prayer meeting in the evening. As the day approaches, organizers encouraged fellow believers to pray for North Korea in anticipation of August 15, and made a 40-day prayer guide available on their website.

"The division [in Korea] has gone on for too long," said Grace Yoo, also one of the organizers of Adopt815.

"We need to pray, and the prayer doesn't end at August 15. We hope [reunification] is soon, but we're going to be faithful and pray until it happens."

##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X:

### Navigating the KM-EM Dynamic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Pastor Sam Koh is the lead pastor of Hillside LA, the English ministry of LACPC.

BY RACHAEL LEE

Pastor Sam Koh has been serving as the lead pastor of Hillside LA, the English congregation of Los Angeles Christian Presbyterian Church (LACPC), for over six years. Throughout his time serving in the English congregation of a Korean church, he's experienced a discouraging phenomenon of many of his colleagues, young pastors who used to serve in English congregations, leaving ministry. This stirred him to start NexGen Pastors' Fellowship, a gathering that creates a space for Korean American pastors to network, share, encourage, and run together. Koh shares his thoughts and experiences regarding ministry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You shared that one of the reasons that NexGen Pastors' Fellowship was started was that many fellow EM pastors were leaving ministry. What do you think are some struggles that EM pastors face that cause them to want to leave ministry?*

You know, I'll be very honest with you. It's not easy to survive in the Korean church. EM pastors are getting older, and as they get older, they need to be able to make decisions. But because they need approval from an elder board or from someone else on the upper echelons, they don't have the freedom to make their own decisions with their own leadership; and when they can't make their own decisions regarding their own finances, they're gonna get tired and get out of there.

Second,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s. Some of the traditions and ways that the first gen workshops is just not how we as the second gen workshops, but EM pastors still strive to play by the same rules.

Third, there's a language barrier, and that's especially significant during meetings. Most, if not all churches' pastors' meetings or leadership meetings will probably be held in Korean, and half the time, we probably can't understand what they're saying. And we can't stop the meeting and ask what every other word means.

*What do you think might be the healthiest model for the Korean*

*immigrant church, then, when trying to navigate these issues of a bicultural, multi-generational, and bilingual congregation?*

At this point, longevity-wise, I personally think it's healthiest for both the KM and the EM if the English congregation just goes independent, given that the EM is stable with finances and leadership. One of the reasons for that is there is always a brokenness and a shift in congregation and leadership when a pastor leaves, and when an EM pastor leaves, the associate EM pastors usually leave as well. And this goes back to decision making. EM is usually not connected to the KM at large, so they usually don't make it into positions of leadership. So they don't have a voice, and they don't have a substantial say in things. In that kind of model, the associate EM pastor is going to leave at some point.

But the thing is, even if an English congregation were to go independent, they don't have to be completely separate. As long as the KM and the EM pastors have a heart for each other and a good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 two could still collaborate and do things together. They could go on missions together and do outreach together, for example.

*How do you think, for churches that have both EM and KM, that the gap between the two ministries can be filled and that they can maintain a healthy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y need to spend time with each other -- the KM pastor, EM pastor, and the senior pastor. I think Koreans tend to be very driven, so they're usually very busy, both KM and EM pastors, with their ministries and families. It's okay to grow and to keep moving forward, but only with a certain measure. You need to maintain a quality of life, and part of that includes relationships. If they spend time with each other, share what's going on, and build a deeper relationship, I think that would be a great start.

*What are some ways that your church has been trying to collaborate with the Korean ministry?*

We do various events together, such as the annual church picnic. There are a lot of things even during the picnic, such as the games, that we as the second generation don't usually do on our own and we might not be used to it, but we go in there with the mindset that we're going to try and do everything the way that KM does it. And we have a lot of fun and we really look forward to it every year.

The EM also cooks the annual Thanksgiving lunch for the entire church, so we prepare food for 400 people.

And one of the most successful things we've done together is going on missions together with KM. We've gone together for about two years now, and so far, we've been to Arizona, Belize, Mexico, and China. For one of the mission trips, we had some Hispanic members

of our EM—our EM is very multi-ethnic—and at first, I noticed that some of the KM members kind of avoided them, because they were ex-gang members.

But at the end of the mission trip, I saw them putting their arms around each other and just so much closer to each other. These things are happening in the name of Jesus.

*What is some advice you would give to EM pastors who may be struggling at their church?*

They need to pray hard. They can't just move by emotions -- they need to have clear convictions, because without that, they'll waver left and right.

Also, I know that second gen pastors can be lazy. I want to encourage them to work hard, and pray hard.

For the EM pastors who may be thinking of going independent, they need to know what they're asking for before they ask. Make sure to know all of the logistics and finances, and make sure that they can be self-sustaining. Wait on the Lord and move with conviction. And make sure to receive support from the KM and have their blessings.

Give your best, and really serve the church.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